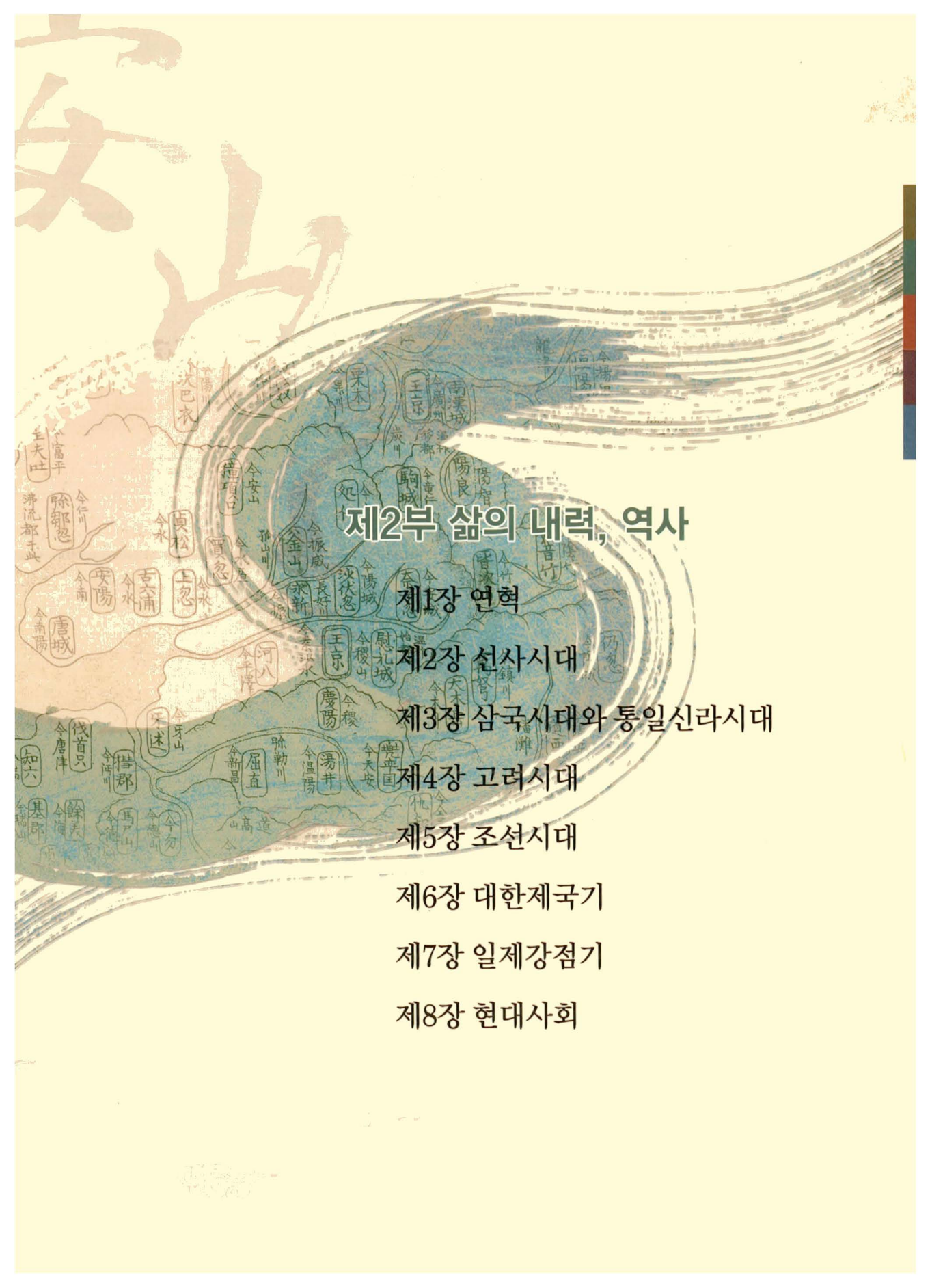




제2부 삶의 내력, 역사

제1장 연혁

제2장 선사시대

제3장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제4장 고려시대

제5장 조선시대

제6장 대한제국기

제7장 일제강점기

제8장 현대사회



제2부 삶의 내력, 역사

제1장 연혁

안산安山이 안산시安山市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1986년 1월 1일부터이다. 1914년 이후 시로 독립하기 전까지 오늘날 안산은 시흥군에 속해 있었고, 그 이전에는 안산군 또는 안산현으로, 또 그 이전에는 장구군 또는 장항구현이라 불렸다. 조선시대에 안산군은 경기도 소속이었고, 고려시대에는 양광도 수주 소속의 속현이었다. 또한 통일신라시대에는 한주 소속이었고, 고구려 때에는 한산주에 속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처럼 안산시의 명칭[지명]과 소속에 대한 연혁은 천 년 이상 소급하여 추적할 수 있다.

현 안산시 지역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옛 안산군 지역, 옛 반월면 지역 그리고 대부도 지역이 그것이다. 옛 안산군 지역은 조선시대 안산군으로 불려온 지역으로 시흥시로 편입된 지역을 제외한 수암면과 군자면 지역을 가리킨다. 옛 반월면 지역은 1906년 광주부 소속의 성곶면·북방면·월곡면이 안산군에 편입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수원군 반월면이 되었는데, 이중 일부(일동·이동·사동·본오동·팔곡이동 지역)가 1986년 안산시 승격시 반월동으로 편입하였다. 그리고 현재의 반월동(건전동·팔곡일동·사사동) 일대가 1994년에 화성군 반월면에서 안산시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다. 옛 반월동 지역과 현 반월동 지역을 합쳐 옛 반월면 지역이라고 부를 수 있다. 대부도 지역은 웅진군 대부면 소속이었다가 1994년에 안산시에 속하게 되었다.

제1절 고대~고려시대의 안산

《삼국사기》지리지에는 고대 안산의 연혁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가) 장구군은 본시 고구려의 장항구현인데, 경덕왕이 개명하였으니 지금의 안산현이다.¹⁾

나) 고구려 한산주 장항구현 [고사야홀차라고도 한다]²⁾

기사 가)는 지금의 안산은 고구려 때 장항구현이었고, 신라 경덕왕(재위 742~765)때 장구군으로 이름을 고쳤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지금'은 《삼국사기》가 편찬된 고려 인종 23년, 1145년이다. 지금 안산시 이름의 기원을 일단 고려시대로 잡을 수 있는 대목이다. 《삼국사기》지리지 고구려 조에 장항구현이 다시 등장한다. 당시 장항구현은 한산주의 소속이었다. 고구려 한산주는 신라 경덕왕 때 한주가 된다. 결국 위 두 기사로부터 오늘날 안산시는 고구려 때 한산주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이름이 장항구현이었고, 통일 신라 경덕왕 때 이름을 장구군으로 고쳤음을 알 수 있다. 장구군으로 이름을 고친 시기는 아마 경덕왕 16년(757) 일 것이다. 통일 후 경덕왕은 지방 행정구역을 전국적으로 개편하는데 이때부터 고유의 지명이 사라지고 한국의 지명은 일괄적으로 중국식 지명, 즉 한자 두 글자 형태를 띠게 되었다.

안산은 고구려 장항구현 이전에는 백제의 영토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없다. 안산이 고구려 세력권 안에 편입된 시점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장수왕 때로 추정되며, 551년 성왕에 의해 다시 백제의 영토로, 2년 뒤에 진흥왕에 의해 신라의 영토가 된 후 757년에 경덕왕이 장구군으로 이름을 바꾼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기사 나)는 안산의 옛 이름 중에는 고사야홀차라는 것도 있었음을 알려준다. 이에 대해서는 고구려조에 있으므로 고구려어로 보기도 하지만 그 이전부터 사용된 명칭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장구군은 고려시대에 지금의 이름인 안산으로 바꾼다.

다) 본래 고구려의 장항구현인데 신라 경덕왕이 장구군으로 고쳤다. 고려 초에 안산군으로 고쳤고 현종 9년에 (본 수주에) 소속되었으며 후에 감무를 두었다. 충렬왕 34년에 문종이 태어난 곳이라 하여 지군사로 승격시켰다.³⁾

1) 獐口郡 本高句麗獐項口縣 景德王改名 今安山縣(《삼국사기》권35 잡지4 지리2 신라)

2) 漢山州 獐項口縣 [一云古斯也忽次](《삼국사기》권37 잡지6 지리4 고구려 백제)

3) 本高句麗 獐項口縣 新羅景德王改爲獐口郡 高麗初改爲安山郡 顯宗九年來屬 後置監務 忠烈王三十四年 以文宗誕生之地 陞知郡事 (《고려사》 권56 지10, 지리1, 수주 안산현)

장구군에서 안산군으로 이름을 바꾼 시기가 고려 초임을 알 수 있다. ‘고려 초’는 1864년에 김정호가 쓴 『대동지지』에 태조 23년으로 나온다. 서기 940년이므로 안산시가 안산이라는 이름을 쓴 것이 천 년을 넘는다. 현종 9년(1018)은 전통 읍지의 건치연혁 조에 거의 빠지지 않고 기술되는 연도로 고려 건국 100년 만에 지방행정구역을 5도道 양계兩界 체제로 정착시킨 해이다. 1018년에 안산현은 수주에 속했다. 수주는 오늘날 수원으로 5도 중에는 양광도에 속했다. 즉 1018년 이후 고려시대의 안산은 양광도 수주 안산현이라 할 수 있다. 후에 감무를 두었다 하였으므로 1018년 처음 안산현이 되었을 때는 안산현에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219년(고종 6)부터 1220년까지 계양도호부에서 지방관으로 활동한 이규보李奎報(1168~1241)의 글에 안산감무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 그 이전에 파견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는 지금의 이름인 안산이 공식적인 명칭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후 고려시대에 안산은 명칭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었지만, 읍격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으로 출발하였다가 감무가 파견되는 군현이 되었고, 충렬왕 34년(1308)에 군으로 승격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제2절 조선시대의 안산

조선의 태조 이성계는 1392년 개국한 후 3년째인 1394년에 수도를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기고, 그의 아들 태종은 지방행정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고려시대의 5도 양계 체제를 8도 체제로 재정립하였다. 조선이 개국하기 직전인 1390년(공양왕 2)에 양광도 소속의 16읍과 교주도 소속의 6읍, 서해도 소속의 9읍 등 모두 31읍이 한꺼번에 경기좌도 및 경기우도로 분속되었으니 44읍에 달하는 경기는 이미 도급 규모로 성장해 있었다. 이때 안산도 도속道屬을 양광도에서 경기좌도로 바꾼다. 조선 초기 안산의 연혁은 《세종실록지리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라) 본래 고구려의 장항구현인데 신라가 장구군으로 고쳤다. 고려 때 안산군으로 고쳤고, 현종 무오년에 수주 임내에 소속되었는데 후에 감무를 두었다. 충렬왕 34년 무신년에 문종이 태어난 곳이라 하여 승격하여 지군사가 되었다. 본조도 그대로 따랐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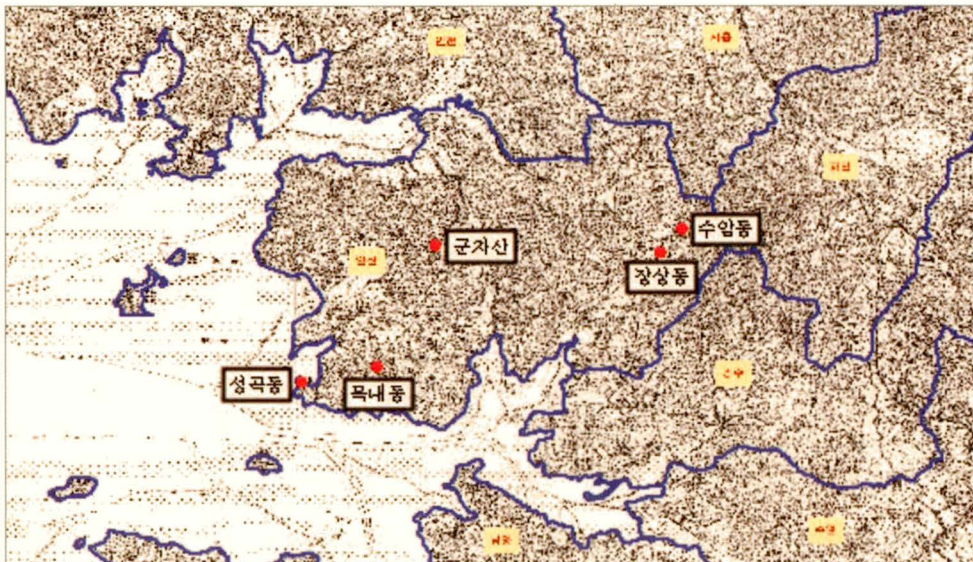
4) 本高句麗獐項口縣 新羅改爲獐口郡 高麗改爲安山郡 顯宗戊午 屬水州任內 後置監務 忠烈王三十四年戊申 以文宗誕生之地 陞爲知郡事 本朝因之 (《세종실록지리지》안산)

위의 내용은 《고려사》의 기록과 대동소이하다(앞절 다) 기사). 그러나 조선 전기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고적 조에 주목되는 기사가 보이는데, 언젠가 안산군이 치소治所를 옮겼다는 중요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치소란 행정중심지를 의미하는데 오늘날 군청소재지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동헌東軒이나 객사客舍, 작청作廳, 창고, 감옥 등의 관공서가 밀집된 장소를 일컫는다. 고적 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고적〉 장항폐현. 군의 서쪽 30리에 있다.

고성. 군의 서쪽 25리에 있다. 흙으로 쌓았는데 둘레가 9,565척이다.⁵⁾

《동국여지승람》고적 조에는 위와 같이 장항폐현과 고성에 관한 간단한 기사가 실려 있다. ‘장항폐현’이란 옛 장항구현(또는 장구현)을 의미한다. 즉 신라나 고구려 때 존립했던 장항구현의 치소가 당시(안산)군의 서쪽 30리에 있다는 내용이다. 일제 강점기 초에 편찬된 《조선지리지자료》에는 군내면의 ‘장항’에 대해, 한글로는 ‘노리울’로 ‘장상·장하·동곡에 걸쳐 있다. 고구려와 신라시대의 읍기邑基로, 따라서 당시 군명이 장항구현·장구현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장상동은 수암동과 불과 1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 마에서 언급된 서쪽 30리와는 차이가 크다.



안산 치소 비정지

5) 〈古跡〉獐項廢縣. 在郡西三十里古城. 在郡西二十五里 土築周九千五百六十五尺 (《동국여지승람》안산군 고적조)



1872년 군현도에 표시된 안산 치소(읍치)

개국 초기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듯이 조선도 전조 고려의 지방행정체계에 대한 개혁 작업에 착수한다. 개혁의 양상은 군현 통폐합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결과는 고려시대 약 520여 개의 지방행정단위가 태종과 세종 대에 걸쳐 약 330여 개의 군현으로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 대에는 안산 외에도 치소가 이동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조선 초기 안산의 치소 이동에 대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가설은 장항구현

의 치소가 지금의 목내동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장항구현의 위치가 명쾌하게 규명된 것은 아니다. 이 대목에서는 특히 고대의 산성과 치소성治所城의 연관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입장은 《동국여지승람》 고적조에 기록된 ‘고성’이 곧 장항구현의 치소였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료 마에 따르면 고성은 치소로부터 서쪽 방면 25리 지점에 있다. 지금의 군자산성으로 비정된다. 군자산성은 자료에 언급되었듯이 흙으로 쌓았기 때문에 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삼국시대에 축조되어 조선시대까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사면에 높이 1.5m, 길이 10m 정도의 석축 일부가 남아 있으며, 삼국시대의 것으로 판단되는 기와 조각, 토기 조각 등이 채집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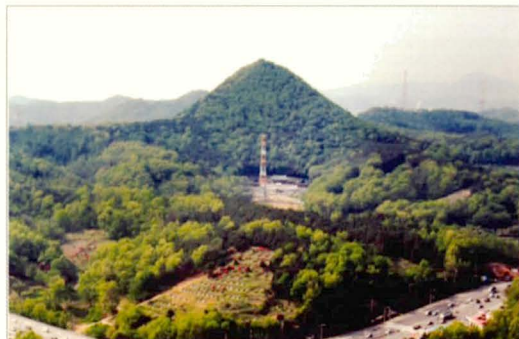
고적조에 장항폐현에 바로 이어 고성이 기술된 것이나 양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점 등은 군자산성의 치소성 가능성을 높여준다. 이를 인정한다면, 고구려 장항구현의 치소는 군자산성이 되고, 그 시점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치소가 언젠가 지금의 목내동으로 내려왔다는 가설이 성립한다. 결론적으로 안산의 치소가 군자산에서 목내동으로, 목내동에서 수암동으로 옮겨갔다는 것으로 요약되는데, 이 경우는 장항구현의 치소를 목내동이 아닌 군자산성으로 비정한 점에서 새로운 하나의 추정이 된다.

고려시대에는 성황사가 지방관이 공식적인 국가의례를 거행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치소 부근에 설치되는 사례가 많았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치소를 추정하는 데에 성황사의 유무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동국여지승람》에 안산의 성황사에 대해 아래와 같은 기록이 있다.

바) <사묘> 성황사. 두 개가 있다. 하나는 군의 서쪽 21리에 있고, 다른 하나는 군의 서쪽 32리에 있다.⁶⁾

6) <祠廟> 城望祠. 有二祠 一在郡西二十一里 一在郡西三十二里

위 내용은 안산군 치소 비정과 관련하여 목내동과 군자산성의 관계를 알려준다. 《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안산군에는 특이하게 성황사가 두 개다. 현재 서쪽 21리의 것이 군자산에 있었던 군자성황사로, 서쪽 32리의 것이 성곡동의 잣머리성황사로 비정되고 있다. 성곡동은 목내동에서 서쪽으로 약 5리 정도 떨어져 있다. 21리와 32리는 고적 조에 언급된, 즉 고성이가 25리 떨어져 있다는 것과, 장항폐현이 30리 떨어져 있다는 정



군자산

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장항구현의 치소가 처음에 군자산성에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 목내동으로 내려왔다'는 가설을 뒷받침해준다. 즉 장항구현의 치소가 군자산에 있을 때 지은 것이 서쪽 21리에 있는 군자성황사이고, 치소가 군자산성에서 목내동으로 이동함에 따라 성황사터로 좋은 가까운 곳을 골라 새로 지은 것이 서쪽 32리에 있는 성곡동의 잣머리성황사라는 것이다.

이상 고구려 장항구현부터 조선 안산군에 이르기까지 치소의 위치 비정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장상동(노리울)→목내동→수암동설로 전설했듯이 장상동의 위치가 조선시대 지리지와 전후 맥락이 맞지 않고, 장상동에서 목내동으로 이전했다는 근거도 찾을 수 없어 정설로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 둘째, 군자산성→목내동→수암동설로 고대 및 고려시대에는 치소가 산성에 설치되었다는 견해에 동조하는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다. 셋째, 목내동→수암동설로 장항구현의 치소가 애초에 목내동에 있다가 이곳이 소릉지 선택과 관련하여 수암동으로 옮겼다는 견해이다. 결국 현재로서는 고구려의 장항구현이나 통일신라의 장구군, 그리고 고려시대와 1441년까지의 안산군 치소를 비정하는 일은 목내동 부근 또는 군자산 부근으로 추정하는 수준에서 멈춰야 할 것 같다.

태종 대에 이어 세종 대에 활발하게 진행되던 군현 통폐합은 통합과 분리, 재통합 등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15세기 중반 세조 대에 이르러 거의 완성되었다. 이때 형성된 330여 군현 수는 1914년까지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 사이에 지방행정제도가 전혀 변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모두 도급 수준에서 약간의 변화를 모색한 것일 뿐 군현 단위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그 첫 번째 제도상의 변화는 1895년 을미개혁의 일환으로 시행된 23부제이다. 늦어도 1413년에는 정립되는 8도제가 근 오백년 동안 유지되어 오다가 23개의 부를 거점으로 하는 다핵심 체제로 전환된 것이다.

23부제는 을미개혁 추진 세력의 몰락과 더불어 이듬해(1896년) 폐지되고 새로 13도제가 실시

되었다. 13도제는 8도 가운데 경기, 강원, 황해도를 제외한 5개 도를 남도와 북도로 나누어 만든 것으로 이때 역시 군간 통합은 없었으므로 조선 초기에 형성된 330여 군현체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 인천부에 속했던 안산은 13도제와 함께 다시 경기도에 속하게 되었고, 6개 소속면 또한 변화가 없었다.

제3절 일제강점기의 안산



일제강점기부터 1960년대 초까지 사용한 수암면사무소

일본의 조선총독부도 합병 초기에 대대적이고 전국적인 지방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하였다. 조선 5백 년 지속된 330여 개의 군읍은 67% 수준인 220개 군으로 축소되었다. 이때 군간 통합에 적용된 기준은 각 군의 면적과 인구수를 가능한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었다.

일제시기 행정구역 개편은 1913년 12월 29일에 조선총독부령으로 공포되고 1914년 4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조선총독부령 제111호). 이때 안산군은 과천군과 함께 시흥군으로 통합되었다.

1914년에 시흥군 6개 면과 안산군 9개 면, 과천군 7개 면이 동면, 서면, 북면(이상 구 시흥군), 과천면, 신동면, 남면, 서이면(이상 구 과천군), 수암면, 군자면(이상 구 안산군) 등 모두 9개 면으로 편제된 거대 시흥군으로 재탄생하였다. 당시 군청은 북면 영등포리에 있었다.

이때 안산군은 1906년에 광주부에서 넘어온 성곶·북방·월곡 세 면을 반월면으로 통합하여 수원군에 넘겨주었다. 한때 9면 체제였지만 조선시대 대대로 유지되었던 안산군의 6면 체제는 1914년을 기점으로 2면 체제로 축소되었다. 즉 서부 지역의 마유·대월·와리면이 군자면으로, 동부 지역의 초산·인화·군내면이 수암면으로 통합되어 옛 안산군은 거의 동일한 면적을 지닌 양대 지역으로 분화되었다. 군자면과 수암면 북부 지역은 오늘날 시흥시가 되었고, 1914년의 반월면 가운데 일부 지역은 다시 안산시로 편입되었다. 결론적으로 일제시기의 안산은 본디 다른 군에 속했던 반월면 지역을 떼어내고 조선시대 대대로의 옛 안산군 영역이 두 개의 면으로 재편된 시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려 초기부터 사용해왔던 ‘안산’이라는 이름은 면 이름으로도 계승되지 못한 채 어느 곳에서든 공식적인 행정지명으로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제4절 반월신공업도시

1914년에 시흥군에 통합됨으로써 이름까지 사라진 안산은 1986년 1월 1일부로 시흥군에서 독립, 안산시가 되었다. 안산의 독립은 1976년 10월 '반월신공업도시 건설계획안'이 발표되면서 그 서막이 올랐다. 반월신도시 계획이 수립되기 이전 1973년에 일찍이 안양읍을 시로 승격시켰고, 이어서 1976년부터는 화

성군 반월면을 중심으로 하고 시흥군 수암면·군자면을 배후지역으로 하는 반월공업단지를 조성, 인구 약 20만의 반월신공업도시를 건설하고자 한 것이다. 행정적으로는 1976년 12월에 반월도시개발 지원사업소 조례가 공포되었고(경기도 조례 제757호), 1979년 8월에는 지원사업소가 반월지구출장소로 승격되었다(경기도 조례 제969호).

한편 경제개발계획과 함께 1972년부터는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도 수립, 10년에 걸쳐 개발 사업이 시행되었다. 거점개발방식에 의거하여 추진된 이 사업은 국토이용관리의 효율화, 개발기반의 확충, 국토포장, 자원과 자연의 보호·보전, 국민생활환경의 개선 등을 기본목표로 설정함으로써 한국의 국토개발 기초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를 하였다. 국가의 차원에서 보면 반월신공업도시는 제3차 경제개발계획과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는 두 국가적 프로젝트의 합작품이었다.

1970년대는 1960년대에 시행되었던 제1, 2차 경제개발의 효과가 지리적으로도 발현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국가 주도적 경제개발 정책은 급속한 도시의 확산과 공업의 발달을 유도하였다. 이 개발 정책의 지역적인 정점은 당연히 서울이 차지하였고, 인천을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은 이른바 위성도시라는 개념과 함께 주요 공업도시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로써 이른바 수도권에는 업체와 인구가 몰려들게 되었고, 폐해가 조금씩 드러나자 1970년대부터 이미 수도권으로의 산업과 인구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이 강구되기도 하였다.

정책 평가가 어떻든 이는 곧 경제개발과 국토개발이 토지와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억제 시책 가운데 공해를 유발하는 산업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특히 중요했다. 이에 공장 이전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기 시작하였고, 이를 수용할 공간으로 반월 지역이 떠올랐다. 반월신공업도시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1977년부터 본격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반월신공업도시 건설 기공식

반월지원사업소는 1979년 8월 10일에 반월출장소로 승격하였다. 이때 수암면의 고잔리·부곡리·와리·월피리·양상리·성포리, 군자면의 원곡리·선부리·원시리·신길리·성곡리·목내리·초지리, 그리고 반월면의 일리·이리·사리·본오리·팔곡2리가 반월출장소의 관할 구역으로 편입되었고, 각 면에는 수암지소, 군자지소, 반월지소가 설치되어 소속 리를 관할하였다.

제5절 안산시의 탄생과 분구分區



안산시 승격 안산시청 현판식(1986)

반월출장소는 1985년 12월 28일에 공포된 법률 제3798호에 의거 1986년 1월 1일부로 안산시가 되었다. 반월신도시 개발 사업 당시 한때 통상 반월시로 불린 적도 있으나 시 이름은 옛 지역의 이름인 안산으로 결정되었다. 안산이라는 이름을 잃은 1914년 이후 72년 만에 다시 그 이름을 찾는 순간이었다. 1914년에 통합된 군 중에는 그 이름이 면명으로 남은 경우가 많았지만 안산은 그렇지 못했다. 시로 승격하면서 수암·군자·반월 세

지소는 수암동, 중앙동, 군자동, 원곡동, 원초동, 선부동, 반월동 등 모두 7개 동으로 재편되었다. 최초 7개 동은 지속적인 분동分洞과 지역의 확장으로 인해 2011년 현재 2구 25동(행정동)으로 분화되었다.

최초의 분동은 시로 승격하고 만 2년 10개월이 지난 1988년 10월 1일 중앙동과 원곡동, 그리고 원초동에서 시작되었다. 중앙동은 고잔1·2동과 성포동으로, 원곡동은 원곡1·2동으로, 원초동은 초지동과 공단동으로 분동되어 모두 11개 동으로 늘어났다(시조례 제213호). 1991년에는 반월동이 일동과 본오동으로, 수암동이 월피동과 와동으로, 선부동이 선부1·2동으로 분동됨으로써 14개 동이 되었으며(시조례 제416호), 1993년에는 본오동에서 사동이, 선부2동에서 선부3동이 분동함으로써 16개 동으로 늘었다(시조례 제509호).

이듬해인 1994년에는 본오동이 본오1동과 본오2동으로 분동하여 17개 동이 되었고(시조례 제545호), 지역 확장으로 하나의 출장소와 2개의 동이 편입되었다. 즉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팔곡1리, 건건리, 사사리 일원이 반월동으로, 경기도 용진군 대부면 일원이 대부동 및 대부출장소로

편입되면서 1출장소 19개 동으로 확대되었다(대통령령 제12434호 및 시조례 제572호). 1994년에는 군자동이 원곡본동으로 이름을 바꾸기도 하였다(시조례 500호).

시승격 10년째인 1995년에는 월피동에서 부곡동이 분동하여 20개 동이 되었고(시조례 제605호), 다시 한번 시역의 확대가 있었다. 이번 시역의 확장은 당시 시흥시에 속해 있던 수암동·장상동·장하동 일원 및 화정동 일부 지역을 조선시대 대대로 원 소속이었던 안산시로 편입한 것이었다. 이로써 안산동이 신설되었고 총 관할 구역은 하나의 출장소와 21개의 동으로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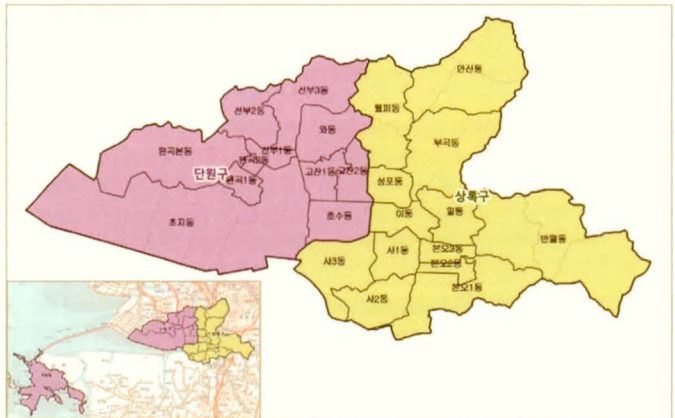
동이 분화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인구 증가에 있다. 이로 인한 행정적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1986년 처음 시가 되었을 때 안산시는 7개 동에 인구가 12만 7,231명이었고, 10년이 지난 1995년 말에는 21개 동에 인구가 50만 7,952명이었다. 십년 동안 약 4배에 달하는 38만 명의 인구가 늘어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약 16.6%로 매우 높았다.

십년이 지난 후에도 안산의 분동은 계속되었다. 1996년 사동이 사1동과 사2동으로 나뉘었고, 본오2동에서는 본오3동이 분화되어 1출장소 23동이 되었다(시조례 제665호). 1997년에는 대부동이 대부출장소로 편입되어 동 수가 22동으로 줄었다(시조례 제747호), 이듬해 1998년에는 공단동이 초지동으로 편입, 동 수는 더 줄어 21동이 되었다(시조례 제800호). 시로 승격한 지 16년이 지난 2002년에는 11월 1일부로(시조례 제1027호) 안산시에 구區가 설치되었다. 상록구와 단원구가 그것으로, 2002년 말 안산시의 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약 64만 명이었다.

단원구 이름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화가 김홍도(金弘道, 1745~?)의 호를 딴 것이고, 상록구는 농촌계몽운동의 선구자이자 심훈의 소설인 《상록수》의 주인공의 모델이 된



구제의 실시 : 상록구와 단원구의 탄생



현재의 행정동 현황(2011)



제 2 부

삶의 내력, 역사

최용신(崔容信, 1909~1935)의 상록 정신을 이어받는 의미에서 이름이 결정되었다.

안산시청은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515번지)에, 상록구청은 상록구 석호로 110(사동 1584번지)에, 단원구청은 단원구 중앙대로 685(초지동 666-2번지)에 위치해 있다. 분구 당시 상록구는 일동, 사1동, 사2동, 본오1동, 본오2동, 본오3동,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반월동, 안산동 등 모두 11개 동을 관할하였고, 단원구는 와동, 고잔1동, 고잔2동, 원곡본동, 원곡1동, 원곡2동, 초지동, 선부1동, 선부2동, 선부3동 등의 10개 동과 대부출장소를 관할하였다.

안산시 행정동의 분동(分洞)

연도	86	88	91	93	94	95	96	97	98	02	03	05	07	법정동
동수	7	11	14	16	1+19	1+21	1+23	1+22	1+21	1+21	12+12	12+12	12+13	
구	7	11	14	16	1+19	1+21	1+23	1+22	1+21	1+21	12+12	12+12	12+13	
단원구	와동													와동
상록구	수암동													월피동 양상동 부곡동
상록구	월피동													부곡동
단원구	고잔1동													고잔동
단원구	고잔2동													고잔동
단원구	성포동													성포동
상록구	군자동													원곡본동 신길동
단원구	원곡1동													원곡동
단원구	원곡2동													원곡동
단원구	초지동													초지동 원시동
단원구	공단동													목내동 성곡동
단원구	선부1동													선부동
단원구	선부2동													선부동
단원구	선부3동													선부동 화정동
상록구	일동													일동
상록구	이동													이동 일동
상록구	본오1동													본오동 팔곡2동
상록구	본오2동													본오동
상록구	본오3동													본오동
상록구	사동													사동
상록구	사1동													사동
상록구	사2동													사동
상록구	화성군 →													팔곡1동 건건동 사사동
단원구	옹진군 →													대부동
단원구	대부출장소													대부동
상록구	시흥시 →													대부동
상록구	안산동													대부동
상록구	수암동 장상동 장하동													대부동

구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분동은 계속되었다. 상록구는 2004년에 일동에서 이동이 분동하고 (12개 동), 2007년에는 사1동에서 사3동이 분동하여 2012년 현재 13개의 행정동을 관할하고 있다. 단원구는 2003년에 고잔1동에서 호수동이 분동하고, 1997년에 대부출장소에 흡수되었던 대부동이 2005년에 부활함으로써 12개의 행정동을 관할하고 있다. 안산시는 2012년 현재 25개의 행정동과 30개의 법정동으로 편제되어 있다.

제2장 선사시대

제1절 구석기시대

구석기시대는 홍적세 빙하시대에 해당되는 때로, 대체로 신석기문화가 시작되기 이전인 1만 2,000년 전 무렵까지 지속되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문화 단계이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돌로 도구를 제작하여 사용하였으며, 사냥과 채집을 하며 이동성 생활을 하였다. 안산 지역에는 큰 강이 없어서 대규모의 강 퇴적이 남아 있는 단구는 없지만, 산 사면에서 흘러온 퇴적물 속에서 석기들이 발견된 예들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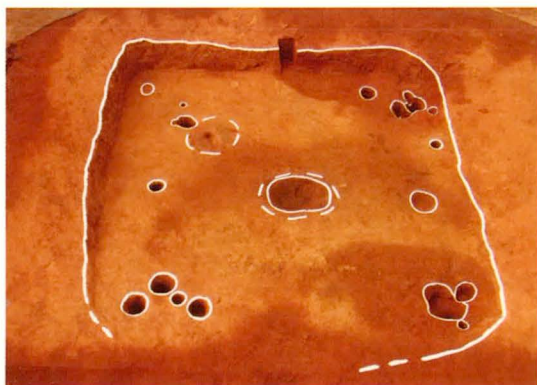
안산 지역에서 보고된 구석기 유물은 아직 제한적이다.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동편 구릉지의 분대마을 터를 실험 발굴하는 과정에서 다각면원구로 분류되는 석기 1점이 홍적세층으로 보이는 점토 퇴적물 속에서 발견된 적이 있는데, 이것이 안산 지역 최초의 구석기 보고사례이다. 또 같은 상황의 퇴적물이 발굴된 예가 신길동유적이다. 사면붕적斜面崩積 기원의 토층 속에서 불규칙한 형태의 석기들이 수습된 바 있는데, 이는 유사한 구석기 발견을 예고하는 사례라고 판단된다.

안산 지역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서해안 지역과 마찬가지로 강수량이 높고 지형적인 변화가 별로 없는 지역으로서, 오랫동안 침식을 받은 지형이 대부분이다. 이 지역에서 홍적세에 퇴적된 강 퇴적물이나 풍성 퇴적물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한양대학교에서의 발굴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재퇴적된 사면퇴적물 속에 구석기시대의 유물들이 잔존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최근에 김포나 파주 등지에는 구석기 유적들이 낮은 구릉지 사이의 작은 골짜기나 그 사면에 재퇴적된 사면붕적 기원의 퇴적물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안산

에서도 그러한 유적이 나타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한편 안산 지역의 개펄이나 연안 지역에 후기 구석기시대의 퇴적층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저 개발의 경우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안산천 중상류 지역의 구릉지에는 김포 등지와 마찬가지로 사면붕적 기원의 퇴적물 속에 구석기 유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안산읍성 발굴 과정에서 하부에 하천단구면이 잔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것을 보면, 수리산 자락도 유의해서 조사해야 할 지형으로 여겨진다.

제2절 신석기시대



신길동유적 15호 6주공 주거지(고려문화재연구원 제공)

신석기시대는 식량 생산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기로서, 금속기가 발명되기 이전의 문화 단계이다. 토기가 출현하고 석기 제작에 있어 갈아서 만드는 마제의 기법이 출현하는 시기를 신석기시대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시기는 대략 1만 년 전에 시작되어 기원전 1,000년경에 끝났는데, 다만 인접한 만주지역에서는 이보다 이른 시기에 청동기시대로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석기시대에도 수렵과 어로가 중요한 생산 수단이었으나, 구석기시대와 달리 정착생활을 영위하

였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마을을 이루어 씨족 공동체 생활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석기시대의 안산은 개펄이 발달하고, 섬이 많으며, 해안선이 복잡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생존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대단히 적합한 지역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실제로 신길동 지역에서 신석기시대 마을의 흔적이 발견된 바 있다.

안산 지역의 신석기시대 토기 문화는 한강 유역을 포함하는 중서부지역 문화 전통의 하나이다. 한강 유역에서 출토되는 토기는 한반도 서북지역의 그것과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닥이 뾰족하거나 둥그스름한 모양을 지닌 빗살무늬토기의 존재이다.

신석기시대의 빗살무늬 전통은 중부지역에서 기법상의 진화를 거듭하였고, 한편으로는 한반도 남부로 전래되어 기존의 토기들과 혼합되거나 대체되었다. 초기 빗살무늬토기는 몸통 전면을 세 개의 시문구역으로 나누어 전면에 기하문을 시문하였지만, 시간의 흐름과 함께 문양이

성글어지고 규칙성이 줄어들며, 시문 영역 또한 몸통의 상부나 구연부 가까운 곳으로 한정되었다. 이러한 토기 문화는 한강 입구뿐만 아니라 서해안 전역에 걸쳐 나타났다. 오이도패총을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한강 유역의 빗살무늬토기 문화는 황해도 연안 지역의 것들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 이는 당시 인구의 이동의 방향과 범위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서부 해안 지역의 신석기문화는 결국 연안 지역을 따라서 이동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안산에서도 서해안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신석기시대 토기 문화가 나타나고 있다. 주로 과거 해안이었던 곳에서 발견되는 패총 유적이 많은데, 최근에는 신길동 발굴조사에서 대규모의 주거지군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패총 유적 중에서는 별망패총 유적이 가장 대표적이다. 별망패총 유적은 인접한 오이도패총 유적이나 영종도의 신석기 유적, 영흥도 등지의 신석기 토기 반출 유적들과 그 토기의 형식적인 면에서 유사함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신석기 유적들은 토기 형식으로 볼 때 신석기시대의 중·후반에 속하는 것들로, 신석기시대 전반에 속하는 유적들은 현재 확인이 불가능한 바다 속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별망패총 이외에 대부도의 남사리 등지에서 패총이 발견된 예가 있으며, 이러한 패총에서 나타난 생활문화의 양상은 별망패총의 것과 비슷하다.

패총에서 드러난 정보들을 중심으로 이 지역 신석기인들의 생활양식을 복원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어로를 생활기반으로 하여 사냥과 채집을 하면서 살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서해안을 따라 넓게 분포하는 개펄에서 굴이나 조개, 그 외에 다양한 해양생물들을 채집하면서 생활을 영위했을 것이다. 이들 중 일부는 내륙과 관계를 맺고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해안 지역을 방문하면서 살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계절 이동을 암시하는 유적으로는 영종도의 조리 유적, 안면도의 고남리 유적이 있다. 이들 유적에서는 해안에서 저장용 음식을 장만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패총에서 채집한 해양생물들을 살펴보면, 별망패총의 경우 굴이 압도적으로 많은 점이 특징이다. 조개류는 간조 시에 채집이 가능하지만, 토굴·비단가리비·새꼬막 등은 잠수하지 않고는 채집이 불가능한 것들로서, 이를 통해 당시 경제 행위의 단면을 알 수 있다. 신석기시대 안산 지역에서는 단순한 조간대 채집뿐 아니라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 어로 작업이 병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별망패총에서는 석기가 그다지 발견되지 않았는데, 다른 패총들도 이러한 상황은 비슷하다. 이는 이 지역 생계경제행위의 공간적 패턴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여지를 준다. 즉, 이곳이 신석기인들의 장기 거주지라기보다는 채집과 직접 관련된 행위들만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유적일 가능성이 있다.

패총에서 발견되는 토기의 무늬들은 중서부 해안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별망패총

의 경우 토기의 형식이 서해안 빗살무늬의 전통을 잘 보여주는 단사선문·어골문·점열문·손톱무늬 등이 시문되어 있다. 여기에서 시문 구역에 따라 토기를 구분할 수 있는데, 구연부와 몸통부를 다르게 시문한 것이 있고, 몸통 전체를 한 가지 무늬로 시문한 것들이 있다. 안산 지역의 신석기인들은 대체로 황해도 서해안지역이나 한강 유역에서 이 지역으로 진출한 것으로 여겨진다.

제3절 청동기시대



선부동 출토 지석묘(성호기념관)

청동기시대는 일반적으로 청동으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한 때부터 철기가 나타나기 이전의 시기를 말한다. 또한 민무늬토기의 출현과 더불어 새로운 무덤 양식의 출현을 중요한 근거로 삼는데, 고인돌과 돌널무덤이 있으며, 간혹 독무덤도 보인다.

안산 지역 청동기시대 유적에서는 청동기가 출현한 경우가 없으며, 청동기의 유무보다 주거지, 토기, 무덤 양식을 통해 정의되고 있다. 즉, 한반도 내 청동기 문화의 특성을 전형적으로 보

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안산 지역의 청동기 문화는 정확한 연대 측정치가 누적되지 않았지만, 대체로 기원전 10세기 전후한 시기에서 기원전 3세기 전후한 시기로 생각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마을이 입지하는 지형이 다양화되어서, 평탄지뿐 아니라 구릉성 산지의 정상부에 입지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안산시 인근인 군포시 대야리 유적이나 부천 고강동 유적의 경우에도 평야와 연결된 구릉성 산지에 입지한 마을 유적이며, 경기도 서부지역에도 이와 유사한 유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으로 고인돌을 들 수 있다. 안산 관내의 고인돌 대부분은 남방식으로, 월피동·양상동·선부동 등지에서 발견되었다. 지하에 토광을 파서 시체를 묻거나 간혹 돌을 깔았던 흔적이 있다. 하지만 안산 선부동과 인접한 광명시 가학동에서는 북방식의 탁자식 고인돌들이 발견되었다. 이처럼 인근 지역에 북방식과 남방식 고인돌이 함께 보이는 것은 안산 지역이 청동기시대의 문화적 경계지역이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안산 지역 고인돌 유적들에서는 그다지 많은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마제석검, 반월형 석도, 무문토기편들과 숫돌, 석부 등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이러한 유물만으로는 당시 안산 지역의 청동기시대 문화상을 복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바탕으로 광명시 가학동이나 부천시 고강동처럼 안산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다른 지역의 고인돌 유적을 참고하면 당시의 시대상을 대략적으로 짐작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안산 지역의 청동기시대 주민들은 한강 중·하류 유역 청동기 문화의 주체들과 크게 다를 바 없었을 것이다. 장방형의 반수혈주거지(半竪穴住居地: 반움집)를 짓고 살았을 것이며, 이러한 주거지는 대개 나지막한 구릉지에 여러 채의 집이 모여 작은 마을을 이루었을 것이다. 안산 부근의 주거지 유적으로는 시 경계 상에 있는 군포시 대야동의 주거지 유적이 대표적이다. 대야동의 주거지 유적은 산 사면을 깎아서 조영하였으며, 장방형이고, 내부에 저장공들이 벽을 따라서 배열되어 있는 형식이다. 부천 고강동이나 파주의 옥석리 등에서 나타나는 주거지 형태와 거의 비슷하며, 경기지역 청동기시대의 일반적인 주거문화와 큰 차이가 없다.

청동기시대 마을 부근 평지는 농경지로 이용되었을 것이며, 밭작물뿐 아니라 수전水田 경작도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여주군 혼암리에서도 쌀이 발견되었고, 충남 부여의 송국리 유적에서도 쌀이 발견된 바 있다. 그 밖에 김포지역과 일산지역에서도 이 시기에 해당되는 이탄층泥炭層에서 쌀이 발견되었다. 그렇다면 안산 지역에서도 쌀농사가 행해졌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다. 안산 지역에서도 과거 해안선과 연결되는 작은 강들이 범람하여 습지가 넓게 분포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농경의 흔적은 도구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반월형 석도나 유구석부는 이 시기 농경과 관련된 도구로 여겨진다. 부천의 고강동 유적에서는 날이 날카롭게 다듬어진 반월형 석도가 한 유적에서 4개나 발견된 바 있다. 가학동 유적에서도 고인돌 부근에서 반월형 석도가 채집되었는데, 수확 도구인 반월형 석도의 보편화는 이 시기 농업이 주요한 생산수단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농업생산력을 바탕으로 사회체제는 점차 복잡해졌으며, 이로 인해 상당수 인원의 동원이 필요한 분묘 형식인 고인돌의 조영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직적인 인력 동원은 결국 사회의 분화를 가속화시켰고, 새로운 사회질서, 즉 복합사회 출현의 동인이 되었을 것이다. 안산에서도 고인돌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이 지역에서 상당한 사회적 분화가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안산을 포함한 한강 하류의 청동기 문화는 토기의 양상으로 볼 때 기본적으로 서북지방의 각형토기(角形土器: 팽이토기) 문화와 동북지방의 공렬토기(孔列土器: 구멍무늬토기) 문화가 섞인 것으로 판단된다. 선부동 지석묘, 파주의 다올리·옥석리 등의 유적들에서도 각형토기들과 공렬토기들이 혼재하고 있거니와 공렬토기에서도 구순각목口唇刻目이 남아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같은 양상은 여주 혼암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고인돌이나 토기 등의 유적·유물을 통해 보았을 때 안산 지역에는 청동기 문화가 있었고, 한강 하류의 청동기 문화와 그 계통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고 여겨진다. 해안에 조간대가 넓게 분포해 있고, 작은 강들이 만든 습지들은 선사시대 내내 생계경제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였다고 여겨진다. 청동기시대 주민들은 이러한 환경을 이용하며 지속적으로 정착해 살았을 것이다. 다만 본격적인 청동기 문화인 요령식 동검(비파형 동검)이나 초기 철기시대의 한국식 동검(세형 동검)을 가진 집단은 출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제1절 삼국시대

1. 백제 지배시기

《삼국지三國志》위지魏志 동이전東夷傳에 따르면 백제는 마한을 구성한 54개의 성읍국가 가운데 하나인 백제伯濟가 성장하여 발전한 나라이다. 이 시기 안산 지역은 미추홀에 위치했던 비류백제와 근접한 곳으로서, 그 영향권에 있었거나 교류를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후 비류백제가 온조백제에 통합되면서 그 영향 하에 놓이게 되었을 것이다. 안산 지역이 마한 내 54개 성읍국가 중 하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현재로써는 위치 비정된 것이 없어 단정하기 힘들다.

안산 지역은 백제가 성읍국가에서 연맹왕국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 백제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 간접적인 지배를 받게 되었을 것이고, 점차 백제의 지배체제가 강화되면서 새로운 지방통치 체제 속에 편제되어 직접지배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 시기는 늦어도 4세기 근초고왕(346~375 재위)이 집권하던 중앙집권적 귀족국가 시기로 보인다. 하지만 4세기 후반 삼국 간 항쟁에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안산 지역 역시 변화를 맞게 되었다. 그 변화는 고구려 광개토왕(391~413)의 영토 팽창이었다. <광개토왕릉비문>에 따르면 이때 고구려는 한강 유역으로 진출하여 58성 700촌을 점령하였으며, 백제 아신왕阿莘王으로부터 항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광개토왕릉비문>에는 “백제가 남녀 1,000명을 포로로, 세포稅布 1,000필을 보냈으며, (아신왕이)

태왕에게 항복하고 이제부터 영원히 왕의 노객(奴客: 신하)이 되겠다고 맹세하였다. 태왕太王은 은혜를 베풀어 미혹하여 저지른 허물을 용서하고 후에 순종한 정성을 기특히 여겼다. 이에 58성 700촌을 획득하고 백잔주(百殘主: 백제의 왕)의 아우와 대신大臣 10인, 군사를 거느리고 수도로 개설했다”고 기록되어 있어, 당시 백제의 위기 상황이 어떠한지 짐작할 수 있다.

백제 아신왕(392~405)은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고자 일본에 태자 전지(腆支)를 보내 청병(淸兵) 외교를 전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백제의 위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427년 고구려의 장수왕(413~491)이 평양으로 천도한 이후 남진정책을 강화하며, 3만의 군사로써 한강 유역의 백제 수도 한성을 공격하였던 것이다. 개로왕은 7일 만에 한성漢城이 고구려군에 함락되자 성을 탈출하였으나, 결국 사로잡혀 아차성阿且城 아래로 끌려가 죽임을 당했다. 결국 백제는 한강 유역을 상실하게 되었고 안산 지역 역시 고구려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2. 고구려 지배시기

475년 장수왕의 한성 함락 이후 고구려의 영토가 된 안산은 70여 년간 고구려의 지방통치조직으로 편제되었다. 고구려의 영역 하에 있었던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지만, 그 영향은 컸다. 《삼국사기》 지리지 고구려조에 따르면 안산 지역의 지명으로 “장항구현獐項口縣 혹은 고사야홀차”가 등장한다. 이는 안산 지역의 지명이 문헌상 처음으로 등장한 사례이다. 즉, 안산 지역의 가장 오래된 지명은 고구려식 지명인 셈이다.

고대 사회에서 현縣의 설정에는 일정한 규모의 인구와 토지, 그리고 지리적 위치 등이 감안된다. 현은 지방통치 작업의 중요한 단위로서,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가 미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이때의 통제란 일차적으로 군사력을 지칭한다. 삼국시대는 군정과 민정의 기능이 미분화되던 시대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산 지역에도 군사권을 겸비한 지방관이 파견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고구려는 지방관으로 각 군郡에 도사道使나 처려근지處閭近支를 보냈고, 각 현에는 가라달可羅達을 두었다. 이들 지방관은 성城에 치소治所를 두고 통치하였으므로 성주城主라고도 불렸다. 지방관의 강한 군사적 성격을 보여주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다. 이처럼 당시 지방관이 군사지휘관의 직책을 함께 수행한 것은 이 시기 지방지배의 특성을 보여준다.

안산 지역을 포함해 새로 확보한 한강 유역을 지방지배체제 아래 편제하며 통치력을 강화해 나가던 고구려는 점차 귀족세력의 대립으로 국력이 쇠퇴하였으며, 왕위계승 분규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중앙정치의 혼란은 지방에 대한 통제 이완으로 이어졌으며, 과거 고구려에 치욕을 당했던

백제와 신라에 기회로 작용하였다. 백제의 성왕(523~554)과 신라의 진흥왕(540~576)은 동맹체제를 갖추고 551년 고구려를 향해 북진하였다. 그 결과 백제는 한강 하류의 6군郡을 회복하였고, 신라는 한강 상류의 10군郡을 얻는 성과를 거두었다. 백제는 한강하류 지역을 회복함으로써 고토故土 회복이라는 숙원을 풀 수 있었는데, 이때 안산 지역은 백제가 수복한 6군의 영역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백제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믿었던 동맹국 신라의 배신으로 2년 만에 신라 진흥왕의 침입을 받아 한강 하류의 6성을 빼앗기고 말았기 때문이다. 이에 성왕은 신라에 대한 보복을 위해 태자인 창(昌: 위덕왕)을 보내 전투를 벌였고, 싸움을 독려하기 위해 전장으로 향하던 중 관산성(管山城: 옥천)에서 매복하던 신라군의 기습을 받아 전사하였다.

백제는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를 맞아 태자 창이 왕위에 오르고 국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였지만, 7세기 전반 무왕대와 의자왕 초기에 일시적으로 중흥을 이룩했을 뿐 그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3. 신라 지배시기



삼국시대 축조된 성태산성의 석축

신라에게 있어서 한강 유역의 확보는 외형적인 면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큰 의미를 지니는 사건이었다. 그전까지는 대중국 교역이 고구려와 백제를 통한 간접적 형태였기 때문에 선진문물의 도입에 있어 내용이나 수준이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한강 유역 확보로 대중국과의 직접적인 교역의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단순한 영토 확장을 넘어 국가체제정비와 문화교류에 일대 진전을 이룩하게 되었다. 그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던 교

역장이 바로 남양만의 당항성(唐項城)이다. 당항성은 곧 '당성(唐城)'으로,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에 위치한 복합식산성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남양도호부 고적조를 살펴보면 당성은 고당성(古唐城)으로 나타나는데, 지금까지도 이 지역에서는 신라시대의 유물이 가장 많이 출토되고 있다.

신라의 한강 유역 확보는 진흥왕대에 전개한 팽창정책의 일환이었다. 우선 신라는 남한강 상류인 충청북도 단양지역을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한강 하류지역까지 점령한 후 동해안을

따라 함경도지역까지 진출하여 전성기를 구가하였다.

신라의 영역에 편제된 안산 지역은 일정기간 장항구현이라는 명칭을 유지한 것 같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안산군조에 따르면 “안산군은 본래 고구려 장항구현으로, 신라 경덕왕대 장군군으로 고쳤다”고 한다. 이는 안산이 신라의 군현으로 편제된 후에도 경덕왕대(742~765) 장군군으로 개명改名되기까지 ‘장항구’라는 이름을 사용하였으며, 현으로서 지방통치체제 내에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신라의 군현으로 편제된 이상 신라 중앙 정부에서 지방관이 파견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신라의 지방통치체제는 통일 전후를 기준으로 다른 형태를 보인다. 삼국통일 이전인 신라 중고기는 주州와 군郡 단계까지 지방관이 파견된 것으로 보아 ‘주군제州郡制’라 부르며, 삼국통일 무렵부터는 군현에도 지방관이 파견된 것으로 보아 ‘군현제郡縣制’라 파악한다. 신라 중고기에 주에는 군주軍主, 군에는 당주幢主, 촌에는 도사道使 등이 각각 파견되었으며, 통일기에 들어서면서는 군현제도 정비되어 주에는 군주, 군에는 태수太守, 현에는 현령縣令이 각각 두어졌다.

당시 장항구현에도 현령이 파견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신라에서 현령이 등장하는 것은 진평왕(579~632)대 찬덕贊德이라는 인물이 가잠성假岑城 현령으로 언급되는 것이 처음이다(611). 따라서 그 전 시기에는 현령보다 도사가 파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파견된 도사는 신주新州 군주의 지휘 아래 지방통치를 실시했을 것이다.

제2절 통일신라시대

김춘추의 대당외교로 나당羅唐연합을 이끌어 낸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킴으로써 삼국통일을 달성할 수 있었다. 신라의 나당연합작전 전개에는 안산 지역도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당의 소정방은 군대를 이끌고 덕물도(현재 덕적도)에 도착한 후 금강 하구로 상륙하여 백제 수도 사비로 진격해 갔는데, 백제 정벌 이후 귀국할 때 풍도豐島에서 얼마



소정방 관련 설화가 전하는 풍도 은행나무

간 지내고 갔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삼국통일 이후 나당전쟁 상황에서 신라에게는 옛 백제와 고구려 유민들의 자발적인 도움과 지원이 절실했으므로, 신라는 수도인 경주에 사는 왕경인(王京人)에게는 경위(京位)를 수여하고, 지방민에게는 외위(外位)를 주었던 차별적 제도로써의 외위제를 문무왕 14년(676)에 경위로 일원화시켰다. 단순히 제도의 폐지만을 본다면 지방민에 대한 치우개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시기 신라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백제와 고구려의 유민들로부터 적극적 지원을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신라에 대한 지방민의 귀속감이 강화되었을 것임은 물론이다.

신문왕(681~692)은 강력하고 상징적인 개혁정책으로서 지방제도의 개편을 단행하였다. 지방제도의 개편은 신문왕 재위 5년인 681년에 전국 군현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9주(州) 5소경(小京) 117군(郡) 293현(縣)의 영속관계가 정비되었는데, 주·군·현을 기본 골격으로 하는 지방통치체제의 확립이었다. 안산이 속한 곳은 한산주(漢山州)였는데, 9주 가운데 가장 큰 영역을 차지했다. 그러나 장항구현은 신문왕대 지방제도 정비 시 개명(改名)이나 읍격의 승강(昇降)이 없었으므로 변동 없이 유지되었다. 지방관은 현에 파견되는 현령이 두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신라의 지방통치체제는 신문왕대 한차례 정비된 후 큰 변동이 없다가 경덕왕대(742~765) 들어 변화를 맞게 된다. 경덕왕은 재위 16년(757) 지방통치제도를 개편하고, 재위 18년(759) 중앙행정조직을 개편하였다. 이른바 한화정책(漢化政策)으로서, 8세기 중반 신라 주변의 대외정세 악화에 따른 대비와 내부의 수취체제 모순을 개혁하고자 시도한 근본적 체제변혁이었다.

경덕왕은 전국 군현의 전통적, 혹은 토착적 명칭을 중국식 명칭으로 정비하였다. 하지만 중국식으로 개편한다고 해서 무분별한 모방은 아니었으며, 신라 정부 자체의 기준에 의한 체제정비 조치였다. 최상급 지방통치단위인 주는 2읍제로 조정되어, 안산 지역이 속해 있던 한산주는 한주(漢州)가 되었다.

주의 개편에 더불어 일반 군현의 개혁도 이루어졌다. 군현제의 정비는 첫째, 군현명의 개칭, 둘째, 군현 영속의 변경, 셋째, 군현의 읍격(邑格) 조정이었다. 안산의 장항구현은 세 가지에 모두 해당된다. 먼저 '장항구'에서 '장구'로 이름이 바뀌었고, 울목군의 영현(領縣) 중 하나였던 장항구현이 독립하여 장구군(獐口郡)이 되므로 인해, 현에서 군으로 승격되어 기존의 군 지배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배영역을 확보하게 되었고, 격도 높아지게 되었다. 이 시기에 승격된 군현들은 대체로 평야지대라는 공통된 특징을 보이고 있어, 장구군으로의 승격 역시 그러한 틀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당시 안산은 평야지대여서 농업생산력이 나쁘지 않았고, 해안에 위치해 있어 해상 교역이나 수산물의 획득으로 인해 경제적인 면에서 풍족하였다.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농업과 수산업, 해양교역까지 이루어졌다면 이 지역 인구는 평균적으로 상당한 수준을 유지했을 것이므로, 결국 군으로의 승격이라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장구군으로 승격되면서 지방관 역시 격을 달리하여 파견되었다. 이전의 현령을 대신하여 태수太守가 두어졌다. 이에 따라 현 시절에 비해 그 권한과 기능이 한층 강화되었다. 이후 장구군은 사료상에 특별한 관련 사항이나 언급이 보이지 않으므로, 고려시대까지 커다란 변화 없이 이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제4장 고려시대

제1절 고려시대 지방통치조직과 안산의 위상

1. 고려 초기 지방제도와 “안산”의 등장

지리적으로 볼 때 현재의 안산시에 포함된 지역은 고려 왕조의 지방행정상 단일한 군현으로 편제되지 않았다. 현재의 수암동·고잔동·원곡동 등의 안산 지역은 수주(水州: 수원)의 속현(屬縣)이었던 안산현으로 편제되어 있었고, 반월지역은 광주목(廣州牧)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리고 대부도지역은 인주(仁州: 인천)의 속현이었던 당성군(唐城郡: 화성)에 소속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지방제도가 고려시대 전시기를 통해 몇 차례에 걸쳐 변화되면서 안산 지역이 지방제도상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달라졌다.



고려시대 치소로 비정되는 목내동산성

《고려사》지리지(地理志)에는 통일신라의 “경덕왕이 장구군으로 고쳤으며, 고려 초에 안산군으로 고쳤다가 현종 9년(1018)에 수주에 내속시켰다”라고만 기록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산

군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확실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지방 군현들의 명칭을 개정한 ‘고려 초’는 대개 940년(태조 23)으로 추정하고 있다.

후삼국을 통일한 뒤 고려 정부는 지방세력들의 향배에 적절히 대응하는 한편 해당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하면서 지방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였다. 고려와 후백제 사이에 전선이 형성되었던 한반도 남부 일대에 ‘고려 초’ 군현이 개편된 사례가 집중되었던 사실도 당시 군현 개편의 사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고려 왕조는 1018년(현종 9)에 대대적인 지방제도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 결과 전국에 4도호都護·8목·56지주군사知州郡事·28진장鎭長·20현령을 배치하여 고려 전기 지방제도의 골격이 완성되었다. 이때 이루어진 지방제도 개편에서 수주가 지주사知州事가 파견되는 행정구역이 되고 안산은 수주에 소속한 속현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 고려 전기 지방제도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은 군·현 이른바 속현屬縣이 매우 많았다는 점이다. 안산이 속했던 양광도楊廣道만 놓고 보면 약 1:7의 비율이었다. 속현으로서 안산은 행정업무와 부세수취업무 등을 처리할 때 주현인 수주의 지방관을 통하여 중앙과 연결되었다. 그리고 주현 수주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부담하였기 때문에 일이 있으면 향리와 민들이 주현인 수주까지 왕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그렇지만 속현이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통치영역을 갖고 향리들이 읍사邑司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지배를 할 수 있었다. 향리층의 최상위인 호장戶長은 중앙정부로부터 직첩職牒을 받아 임명되고 직전職田도 받았다. 그리고 그 밑에는 부호장副戶長·호정戶正·병정兵正·창정倉正·사史 등이 있어서 군사, 부세 징수와 지방재정, 형옥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지금의 반월지역은 광주목廣州牧의 관할을 받았다. 광주는 983년에 12목을 설치하여 처음으로 지방관을 파견할 때 그중 하나에 속했고, 1018년 지방제도를 개편할 때도 8목의 하나로 유지되었던 대읍이었다. 당시 광주목의 직할 영역은 청계산과 수리산을 잇는 선의 이남, 광교산 이북 지역을 포함하여 남양만까지 걸쳐 있었다. 또한 대부도와 선감도 등 도서지역은 수주의 속군이었던 당성군에 소속되어 있었다. 당성군은 뒤에 인주의 속군으로 바뀌었다.

대부도와 같은 도서지역의 경우에 특수 행정구역인 부곡제部曲制로는 편제되지 않았지만 일반 군현의 촌락에 비하여 정치·사회적 위상이 낮고 경제적 부담도 많았다. 정부는 도서지역을 목장으로 이용하거나 해산물·목재 등을 부과하여 수취하였다. 그리고 그 주민들을 별도의 장적에 등록하여 차별 대우를 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군현의 장적에 옮겨 등록시켜 주는 조치가 포상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도서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큰 섬의 경우에는 부곡제 지역처럼 하나의 행정단위가 되어 그 섬의 업무를 담당하는 도리島吏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런 경우 상급 군현의 관할을 받으면서도 도리들이 자율적으로 지배하는 영역이었다.

2. 고려 중·후기 안산의 읍격邑格 변화

안산현은 고려 중기에 감무監務라는 지방관이 파견되어, 과거 수주의 속현이었을 때와는 달리, 중앙의 직접적인 행정지배를 받게 되었다. 안산에 감무가 파견된 연도는 분명하지 않다. 그렇지만 감무제도를 처음 시행한 때가 1106년(예종 1)이고 최씨 집권기인 1219년(고종 6)부터 이듬해까지 계양도호부(부평)에서 지방관으로 활동한 이규보李奎報의 글 가운데 안산감무에게 보낸 편지가 있기 때문에, 12세기의 어느 때인가 안산에 감무가 파견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고려 중기에 속현지역에 감무를 파견한 이유는 그 지역 주민들의 유망을 막고 그들로 하여금 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안산현은 1308년(충렬왕 34)에 지군사知郡事가 파견되는 군으로 승격하였다. 당시 충선왕이 복위하여 여러 가지 개혁조치를 하는 가운데 그 일환으로 왕실의 동성근친혼을 제한하려고 하였다. 그러면서 왕실과 혼인할 수 있는 재상지중宰相之宗 15개 가문을 정하면서 안산 김태후金太后 가문을 그 하나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그해 안산에 지군사를 파견하면서 그 이유를 문종이 탄생한 땅이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니, 이 두 사실은 하나로 연결하여 파악할 수 있겠다.

문종이 과연 안산에서 태어났는지는 알 수 없다. 고려 초기의 경우에 왕실 출신 인물들은 총계적總系的 친속관계에 의해 연결되는 향리鄕里로 하고 있었다. 문종의 외향이 안산이었으니 안산을 문종의 향리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현종 때부터 부상한 안산김씨 가문이 고려 후기까지 유력한 문벌로서 행세하였기 때문에 재상지중으로서 인정받았으며, 문종이 왕조의 제도를 정비하고 문화의 전성기를 맞게 한 왕으로 존송되면서, 문종의 향리인 안산의 읍격을 승격하였다고 보인다. 지군사가 파견되는 안산의 읍격은 이후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한편 고려시대에는 개경 주위의 일정 지역에 경기京畿를 두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1018년(현종 9)에 개성부를 없애고 개성현령과 장단현령을 두어 각각 3개, 7개의 현을 관장하게 하고 이것을 경기라고 한 것이 시작이다.

경기제도는 고려 중기에 바뀌어 1062년(문종 16)에 개성부를 다시 두고, 1069년(문종 23)에는 경기의 영역을 크게 확장하였다. 경기의 영역을 확장한 것은 1076년에 전시과田柴科제도를 개정한 조치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관인들에게 전시과로 분급할 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를 확대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며, 이때 안산을 포함하여 양광도·교주도·서해도에 속



《고려사》의 안산군 승격 기사

한 39개 군현이 경기도에 편입되었다.

그러나 이때 확장된 경기제도는 오래 지속되지는 못하고 곧 환원된 듯하다. 고려 후기에 ‘경기 8현’이라는 용어가 자주 나오는데, 이는 개성부사가 맡은 8개 현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고려 말인 1390년(공양왕 2)에 과전법科田法을 시행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서 경기를 44현으로 확장하여 좌도와 우도로 나누고 각각 도관찰출척사를 파견하였는데, 그렇게 확장한 것은 문종 때의 옛 제도에 따랐다고 하였다. 이때 안산군은 경기좌도에 속하였다.

제2절 안산 출신의 문벌과 토성土姓

토성을 사용한 계층은 지배층의 모집단으로 존재하면서 시대의 추이에 따라 신분적 분화를 계속하였다. 그들 가운데에는 중앙관료로 진출하여 문벌을 이루는 가문이 나타났다. 문벌화를 이룬 가문들은 본관을 벗어나 개경에서 관료로서 생활을 하면서도 사심관事審官이 되어 본관 지역사회의 통치에 간여하는 한편, 토성을 개경의 문벌들 사이에서 자기 가문을 구분하여 내세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안산의 토성 가운데 일찍부터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 것은 김씨였다. 안산김씨의 시조는 김궁필金肯弼이며, 그의 아들 김은부가 현달하면서 상서좌복야 상주국 안산현개국후(尙書左僕射上柱國安山縣開國侯)로 추증되었다. 김궁필은 중앙에서 벼슬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지만, 인접한 인주의 지방 세력이던 이허겸李許謙과 사돈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볼 때 그 역시 지방의 지배 세력으로서 이허겸과 사회적 지위가 비슷했다고 짐작할 수 있다.

1010년 거란족이 세운 요가 제2차 침공을 하여 개경이 함락되고 현종이 공주와 전주를 거쳐 나주까지 파천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당시 현종의 파천길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왕이 끼니도 제대로 먹지 못하여 심신이 지치고 극도로 불안한 피난 여정을 이어갈 때, 공주公州의 절도사였던 김은부는 처음으로 지역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 환대하였다. 거란군이 퇴각하여 왕이 돌아오면서 공주에 머물렀고, 김은부가 장녀를 시켜 어의御衣를 지어 바치니 왕이 총애하여 후에 원성왕후元成王后가 되었고, 두 여동생도 원혜元惠·원평元平 왕후가 되었다.

김은부는 왕의 신임을 받아 형부시랑, 지중추사, 호부상서 등을 거쳐 중추사 상호군으로 승진하였다. 중앙관으로서 재임하던 중에는 거란 황제의 생신을 축하하는 사신으로 파견되어 갔다가 귀환하는 도중 내원성來遠城에서 억류되었다가 수개월 만에 돌아오기도 하였다. 그는 1017년(현종 8)에 사망하였으며, 추충수절창국공신 개부의동삼사 수사공 상주국 안산군 개국후

(推忠守節昌國功臣開府儀同三司守司空上柱國安山郡開國侯)에 식읍食邑 1,000호에 추증되었다.

김은부의 장녀 원성왕후는 뒤에 덕종과 정종이 된 왕자와 문종의 왕비 인평왕후와 경숙공주를 낳았다. 차녀 원혜왕후는 문종과 평양공 왕기王基, 덕종의 왕비 효사왕후를 낳았다. 그리고 셋째 원평왕후는 효경공주를 낳았다. 따라서 김은부는 현종의 장인이면서 이후 차례로 즉위한 덕종·정종·문종의 치세 50여 년 동안 왕들의 외할아버지가 되었고 덕종과 문종 두 왕에게는 왕비의 외할아버지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는 비록 이른 시기에 사망하여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지만, 안산김씨는 외척 가문으로서 당대 최고의 문벌이 되었다.

김은부의 장남 김충찬金忠贊은 1025년(현종 16)에 전중시어사가 되고, 1033년(덕종 2)에 예빈경지중추원사로서 재추의 지위에 올랐다가, 1036년(정종 2)에 지중추사 병부상서로서 사망하였다. 시호는 공정恭靖이었다. 차남은 화엄종의 승려가 되어 법호를 난원爛圓이라고 했다. 그는 문종의 왕사王師가 되었고 대각국사 의천의 스승이기도 하였으며 사후에 경덕국사景德國師로 추존되었다.

김원상의 손자 김정경金定卿은 고려 말에 군부사의 총랑을 역임했으며, 1400년(정종 2) 제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을 때에는 한성부윤으로 있다가 난을 진압하고 좌명공신에 책봉되었다. 이 때 그의 봉군호는 연성군蓮城君이었는데, 안산의 별호인 연성에 대한 첫 번째 자료로 주목되며, 1419년(세종 1)에 고향인 안산에서 사망하였다. 《안산군읍지》의 기록에 따르면 읍치 서쪽에 망해정望海亭 옛터가 있으며 관사 뒤편에는 김정경이 살던 집터가 있고 그가 심은 은행나무 세 그루가 있다고 하였다.

제3절 고려 후기 외세의 침입과 안산

1. 대몽항쟁과 대부도

고려 사회는 1231년부터 시작되어 1259년 강화를 맺기까지 수차례에 걸친 몽골군의 침략으로 인하여 큰 충격과 고난을 겪었다.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최씨 정권은 몽골군에 대항하여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고 장기간에 걸친 항전 태세를 갖추었다. 그리고 기병전술에 익숙한 몽골군에 대응하여 농민들을 산성과 섬으로 들어가 방어하게 하는 입보入保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 결과, 입보한 지방민들이 몽골군과 맞서 싸워 여러 지역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안산 지역에서는 몽골의 제6차 침입기인 1256년(고종 43)에 대부도의 별초別抄가 야간에 인주의 소래산 아래에 나가서 몽골병사 100여 명을 격파하여 패주시킨 바 있다. 대부도는 지리적으

로 서해안 해로를 이용하여 강화도에 이르는 도중의 전략적 요충지였고, 조선시대에는 국가에서 목장과 둔전을 설치할 정도로 경제적인 여건이 좋은 섬이었다. 당시 대부도에는 정부의 산성·해도 입보정책에 따라 인주·남양·안산 등지에서 입보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며, 그들과 대부도의 주민들로 구성된 별초군이 출륙하여 몽골군대를 격퇴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삼별초의 항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1271년(원종 12) 착량(窄梁: 강화와 김포 사이의 수도, 일명 손돌)을 지키던 몽골병들이 대부도에 들어오자 현지민들이 살해하고 반기를 드는 일이 발생했다. 착량의 몽골군은 서해를 통하여 개경으로 연결되는 해로를 감시하고 삼별초군의 복상을 차단하기 위해 배치된 군대로서, 대부도에까지 군대의 일부를 파견하였던 것 같다. 그 몽골 병사들이 대부도에 들어와서 주민들을 침탈하여 분노를 샀던 것으로 보인다. 그때 마침 관노비였던 송겸(崇謙)·공덕(功德) 등이 개경에서 무리를 모아 다루가치(達魯花赤)와 고려 관리들을 살해하고 진도 삼별초 정부로 가서 항복하려다가 발각되어 처벌받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송겸 등의 거사 소식을 듣고서 대부도민들이 몽골 군사 6명을 죽이고 반기를 들었던 것이다. 그러자 수주부사 안열(安悅)이 군사를 거느리고 이 항쟁을 진압하였으며, 이 공로로 수주는 수원도호부로 승격하게 되었다. 뒤에 원의 다루가치가 항쟁을 주도한 사람들을 심문하여 당성(唐城) 사람 홍택(洪澤)을 사형시키고, 홍균비(洪均庇) 등은 장형을 가한 다음 역리(驛吏)로 충당하였다. 당성군 사람들이 대부도에 거주하면서 항쟁을 주도했던 것은 아마 앞에서 살핀 것처럼 대몽항쟁기에 정부의 산성·해도 입보정책에 따라 대부도 인근 인주·남양·안산 등의 지역민들이 입보해 있었던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2. 왜구의 침입

고려 말기에는 왜구가 계속하여 침입하여 큰 피해를 입혔다. 당시 일본은 남북조(南北朝)의 전란기에 처하여 사회불안이 컸으며 중앙이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이에 연안 일대의 왜인들이 해적이 되어 고려에 침입해 왔던 것이다. 왜구는 1223년부터 침입하기 시작하여 우왕 때 가장 극성을 부렸는데, 단순한 해적이 아니라 수십 척에서 많게는 400여 척에 달하는 선박으로 떼를 지어 다니면서 약탈과 살인 등을 일삼았다. 이들의 활동 반경은 삼남의 해안지방만이 아니라 위로는 압록강 하구인 의주까지 이르렀으며, 내륙지방도 무사하지 못하였다. 이에 우왕 3년(1377)에는 수도를 내륙 깊숙한 철원으로 옮기려 한 적도 있었다.

왜구가 안산 지역에 침입한 기록을 살펴보면 1378년(우왕 4)과 그 이듬해의 두 차례로 나타난다. 그렇지만 왜적들은 그에 앞서 1351년(충정왕 3) 남양부(南陽府: 화성)와 쌍부현(雙阜縣: 화성 우

정면)을 침입한 바 있고, 1360년(공민왕 9)에는 남양부 서쪽의 화지량(花之梁: 화성 송산면)을 불에 태웠으며, 또 평택·용성(龍城: 평택 오성면)·강화도를 침입하였다. 이후에도 수안(守安: 김포 대곶면)·통진·김포 등지에 침입하여 노략질을 한 기록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안산 지역이 침탈당한 것은 두 차례뿐만 아니라 더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왜구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 중의 하나가 수군(水軍)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1371년(공민왕 20) 이후에 수전이 왜구 방어의 중요한 수단이 되어 그때까지 구분이 애매하던 육군과 수군의 분리가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수전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수군 만호부(水軍萬戶府)를 양광도·전라도·경상도 등지에 설치하였다. 1391년(공양왕 3)에는 해변에 사는 백성들을 3정(丁)을 1호(戶)로 편호하여 수군으로 삼고, 그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는 부세를 거두지 말고 수군의 처자들을 부양케 하자는 수군강화책이 나왔다.

또한 왜구 방어책으로 연안지역의 산성들을 수축하고 읍성을 축조하여 유사시에 주민들이 입보할 수 있게 하는 조치도 강구하였다. 1377년(우왕 3)에 전국적으로 사신을 파견하여 산성을 수축하게 하였다가 이듬해부터 해당지역 지방관의 책임 하에 수축하게 하였다. 안산 지역은 남양만의 해로를 지키는 데 중요한 요충지였다. 이 지역의 관방(關防) 유적 가운데 성곡동 해봉산에 있는 산성과 목내동의 산성 등에서 삼국시대에 이어 고려시대의 유물들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고려 말에도 왜구 침입에 대비하여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려 후기에는 전국이 내적·외적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는 안산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물산이 풍부한 연해지로서 지역개발이 추진되고, 이 지역 출신의 인물들이 꾸준히 배출되어 중앙정계에 진출, 활약하였다.

제5장 조선시대

제1절 지방행정제도의 변화

1. 옛 안산군 지역

안산 지역은 1390년(공양왕 2) 경기좌도에 속했던 안산군은 조선 건국 후에도 안산군이라는



복원된 안산객사

행정지명을 그대로 유지한 채 경기좌도에 속해 있다가 1414년(태종 14) 8도제의 시행으로 경기도에 소속되었다.

그러나 1663년(현종 4) 안산군은 안산현으로 읍호가 강등되었다. 《현종개수실록》에 의하면 온양 지방에서 전패(殿牌)를 훔친 생이(生伊)라는 자의 출생지가 안산 지역이라는 이유로 안산군은 안산현으로 강등되고, 안산군수였던 심현(沈穗)도 파직되었다. 안산이 강등된 것은 〈안산현 관사 중건기(安山縣官舍重建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은 안산현감으로 부임한 이제두(李齊柱)가 관아의 여러 건물들이 무너진 것을 보고 복구를 위해 선혜청 당상인 김좌명(金佐明)에게 공사에 필요한 물자를 요청하여 1668년(현종 9) 가을부터 안산현 관사의 터를 닦기 시작하고 이듬해 4월 낙성식을 거행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듯 1663년 안산군은 현으로 강등되었다가 1672년(현종 13) 안산군으로 복구되었다. 당시 어떤 연유에서 읍호가 승격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안산군읍지》의 선생안을 보면 1672년 정월 안산현감이었던 윤항(尹杭)이 체직되고 새로 안산군수 이준악(李峻岳)이 부임하는데, 이는 안산현이 군으로 승격된 것을 반영한 인사조치였던 것이다.

다음에는 조선시대 안산군의 관원과 강역에 대해 살펴보겠다. 안산군의 관원과 강역은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중종대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안산군에는 군수(종4품) 1명과 훈도(종9품) 1명이 있었고, 영조대에 간행된 《여지도서》에는 군수(4품)와 그 밑에 좌수 1명·별감 2명·군관 2명·아전 17명·지인 12명·사령 5명·관노 8명·관비 10명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고종대 간행된 《경기읍지》에도 군수 밑에 좌수 1명·별감 1명·장교 1명·아전 21명·지인 9명·관노 9명·사령 1명·관비 1명·면주인 6명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 《여지도서》와 비슷한 인원수의 관원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안산 지역의 강역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동쪽으로 과천현 경계까지 5리, 남쪽으로

남양부 경계까지 35리, 서쪽으로 인천부 경계까지 11리, 북쪽으로 금천현 경계까지 14리, 서울까지 51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음에는 안산군의 하부행정구역인 면리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먼저 1759년 간행된 《여지도서》는 기존의 다른 자료와 달리 군현 하부의 행정구역인 면리의 명칭을 알 수 있는 최초의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여지도서》는 방리조坊里條를 가장 첫머리에 두고 면별로 명칭·위치·호수·남녀 인구수를 기록하고 있어 안산군의 하부행정단위와 지역 규모를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안산군에는 군내면郡內面, 잉화면仍火面, 대월면大月面, 와리면瓦里面, 마유면馬遊面, 초산면草山面 등 6개의 면이 있었다. 다른 군현의 경우 면의 하부단위인 리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과 달리 안산군조에는 리에 대한 기록이 없어 구체적인 리의 명칭을 알 수 없다.

안산군 6개 면의 호구수를 살펴보면 군내면은 호가 408호·남자 1,070명·여자 1,050명, 잉화면은 호가 274호·남자 550명·여자 540명, 대월면은 호가 239호·남자 531명·여자 521명, 와리면은 호가 470호·남자 1,060명·여자 1,050명, 초산면은 호가 342호·남자 781명·여자 767명이 각각 있었다. 안산군 6개 면의 전체 호구수는 1,733호에 남자 3,992명, 여자 3,928명으로 남녀 도합 7,920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한편 1789년에 간행된 《호구총수》를 통해 안산군 하부행정구역으로 6개 면에 편제된 48개 리명里名과 호구수를 알 수 있다. 6개 면에 편제된 48개 리를 면별로 정리하면 표와 같다.

(호구총수)의 안산군 면별 리 편제(1789년)

면	리
군내면	동암리, 서정자리, 장곡리, 부곡리, 신동리, 점성리, 성곶리, 성곶포촌리, 양등대리(9개 리)
초산면	두목곡리, 목감리, 논지곡리, 물향동리, 상직곶리, 광석리, 중직곶리, 하직곶리, 하직곶중리, 하직곶하리(10개 리)
잉화면	북곡리, 잉화곡리, 와곡리, 고잔리, 월입피리(5개 리)
마유면	마현리, 장종리, 응곡리, 월곶리, 죽률리, 정왕리, 구지정리, 산북리, 오이도리(9개 리)
대월면	거모포리, 석곡리, 선부동리, 달산리(4개 리)
와리면	선곡리, 신각리, 적길리, 무등곡리, 성두리, 이목리, 능내리, 원당상리, 원당하리, 포촌리, 초지리(11개 리)

이들 안산군 소재 6면·48리의 전체 호구수는 호가 2,758호, 인구수가 남자 6,406명·여자 5,520명으로 도합 1만 1,926명이었다. 1호당 인구수는 4.3명으로 전국 평균 4.28명·경기도 평균 4.0명과 거의 비슷하다.

또한 1895년에 간행된 《기전읍지》는 경기도의 읍지를 한꺼번에 묶은 것으로 안산군 6개 면의 56개 리가 기록되어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와 같이 된다.

《기전읍지》의 안산군 면별 리 편제(1895년)

면	리
군내면	지장리, 장상리, 장하리, 부곡리, 신리, 점성리, 성포리, 양상리, 양하리, 성록리(10개 리)
잉화면	북곡리, 능곡리, 화정리, 광곡리, 와상리, 월하리, 고잔리, 월피리(8개 리)
초산면	조남리, 제청리, 목감리, 논곡리, 상직리, 광석리, 궤곡리, 중직리, 산현리, 물항리, 하상리, 하중리, 하하리(13개 리)
마유면	장중리, 조현리, 응곡리, 월곡리, 정왕리, 죽울리, 구정리, 산북리(8개 리)
대월면	거모포리, 석곡리, 선부리, 달산리(4개 리)
와리면	선곡리, 모곡리, 신각리, 적길리, 무곡리, 성두리, 이목리, 능내리, 성내리, 원당포리, 원상리, 원하리, 구초지리(13개 리)

이들 안산군 소재 6면·56리의 전체 호구수는 호가 2,472호, 인구수가 남자 5,082명·여자 5,008명으로 도합 1만 90명이었다. 《기전읍지》의 호구수는 1759년 간행된 《여지도서》의 호구수와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지만, 1789년에 간행된 《호구총수》의 호구수에 비하면 약간 줄어들었다.

안산 지역은 안산군으로서 오랫동안 경기도에 속하였다가 1895년(고종 32) 지방제도의 개혁이 단행될 때, 즉 23부府제가 실시될 때 시흥군·과천군 등과 함께 인천부에 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23부의 새로운 지방제도에 불합리한 점이 많이 드러나자 이듬해 폐지되고 13도제로 바뀌어, 안산군은 다시 경기도에 속하게 되었다.

2. 옛 반월면 지역

반월지역은 조선시대에는 경기도 광주목에 속하였는데, 광주목은 1577년(선조 10) 광주부로 승격하였고, 1683년(숙종 9)에는 광주유수부로 승격하였다. 1690년 다시 광주부로 격하되었고, 1795년(정조 19) 다시 광주유수부로 승격되었다. 1895년(고종 32) 8도제가 23부제로 바뀌면서 잠시 광주군이 되었다가 이듬해 13도제가 되면서 광주부로 환원되었다.

조선시대 광주부에 속했다가 현재 안산시에 편입된 성곶면·월곡면·북방면의 하부행정구역인 리의 명칭과 호구수에 대하여 알아보자. 먼저 《여지도서》의 기록을 바탕으로 3개 면에 속된 리의 명칭을 정리하면 표와 같이 된다.

《여지도서》의 성곶면·월곡면·북방면 리 편제(1759년)

면	리
성곶면	일리, 이리, 삼리, 사리, 오리(5개 리)
월곡면	일리, 이리, 수서당수리, 오룡동리, 사사리, 상초평리, 하초평리(7개 리)
북방면	속달리, 도대리, 대야미리, 이리, 도마교리, 삼리, 팔곡리(7개 리)

이들 3개 면 19개 리의 호구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성곶면은 호가 328호·남자 711명·여자 994명, 월곡면은 호가 351호·남자 497명·여자 676명, 북방면은 호가 317호·남자 700명·여자 811명이었다. 3개 면 전체의 호구수는 996호, 전체 인구수는 남자 1,908명·여자 2,481명으로 도합 4,389명이었다. 《호구총수》를 중심으로 이들 3개 면의 하부행정단위인 리에 대하여 정리하면 표와 같다.

《호구총수》의 성곶면·월곡면·북방면 리 편제(1789년)

면	리
성곶면	일리, 이리, 삼리, 사리, 오리(5개 리)
월곡면	일리, 이리, 대대동, 입북동, 오룡동, 사사리, 상초평리, 하초평리, 상수리(9개 리)
북방면	속달리, 둔대리, 대야미리, 도마교리, 유곡리, 팔곡리, 건건리(7개 리)

성곶면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보았던 《여지도서》의 일리·이리·삼리·사리·오리의 5개 리가 그대로인 반면, 월곡면에는 7개 리에서 9개 리로 2개 리가 증가하였고, 북방면은 7개 리가 똑같지만 리의 명칭이 달라진 곳이 나타나고 있다.

《호구총수》에 기록된 이들 3개 면의 호구수를 살펴보면 성곶면은 호가 204호·남자 632명·여자 654명, 월곡면은 호가 214호·남자 539명·여자 510명, 북방면은 호가 347호·남자 713명·여자 634명이었다. 3개 면 전체의 호구수는 765호, 전체 인구수는 남자 1,884명·여자 1,798명으로 도합 3,682명으로 전반적으로 호구수와 인구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3. 대부도 지역

조선시대의 대부도지역은 1413년(태종 13) 남양도호부가 되었다가 1644년(인조 22) 남양현으로 강등되었다. 1653년(효종 4)에 다시 남양도호부로 승격했다가 1655년(현종 7) 또다시 남양현으로



강등된 후, 1674년(현종 15) 남양도호부로 재차 승격되는 등 읍호의 승강이 반복되었다. 1895년(고종 32) 인천부 남양군이 되었다가 이듬해 다시 경기도 남양군 소속으로 바뀌었다.

대부도에는 “나라의 말 418필을 놓아 먹이는데, 염부鹽夫 4호가 살면서 돌보게 한다.”고 한 《세종실록지리지》 기록처럼 국가에 의해 목장이 운영되었다. 조선 후기 《숙종실록》의 기록에도 “사복시司僕寺의 의견에 따라 준마駿馬 68필을 제주濟州에서 사들여 남양 대부도에서 번식시켰다.”고 나온다.

다음에는 대부도의 하부행정구역인 리의 명칭과 호구수에 대하여 알아보자. 먼저 《여지도서》에는 대부도의 하부행정단위인 리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고 호구수만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대부도 하부행정단위인 리명을 알 수 없지만, 호구수를 살펴보면 호가 3,002호,¹⁾ 남자 1,845명·여 1,157명으로 도합 3,002명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된다.

한편 《호구총수》를 보면 대부도에 승황동·영전동·하동·상동·종현동·흘곶동·영흥동·엇별동·이작도·선감도·소우도·소충도 등 12개 동리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대부도의 호구수는 1,073호였으며, 남자 1,517명·여자 2,035명으로 전체 3,552명이 살고 있었다.

제2절 지방군제의 변화와 초지량草芝梁

조선 전기 안산군에는 어느 정도의 군정軍丁이 있었을까. 조선 전기 안산군의 군정에 대해 잘 알 수 없지만 《세종실록지리지》를 보면 시위군侍衛軍 1명, 선군船軍 115명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 군정은 당시 전체 군정수가 아니라 중앙군 또는 특수군에 속한 시위군과 선군의 수만을 뜻하는 것이었다. 이는 같은 시기 안산군에 소재하며 수군 만호의 지휘를 받던 초지량草芝梁에 장번수군長番水軍 8명, 선군 615명이 있었던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안산군의 관방시설에는 수군 만호水軍萬戶의 지휘를 받는 초지량영이 대표적이다. 만호 제도는 고려 후기에 도입되었지만, 조선 초기 각 도별로 수군절제사가 기선군騎船軍(수군)을 거느리고 영·진체제營鎮體制가 갖추어지면서 만호가 외적 방어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1458년(세조 4)영·진체제가 진관체제鎭管體制로 바뀌면서 동첨절제사·만호·절제도위 등이 진을 관할하게 되었는데, 대개 동첨절제사와 절제도위는 지방수령이 겸직했으나, 만호만은 무장武將을 따로 파견하여 일선을 지키도록 하였다. 따라서 세조대 이후는 초지량영도 초지진草芝鎭으로

1) 《여지도서》 경기도 남양도호부 방리조에는 대부도의 호수가 3,002호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면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많다. 이는 착오로 남녀 인구수를 호수로 기재한 듯하다.

변화되었을 것이다. 《대동지지》에도 초지진이 1656년(효종 7)에 강화江華로 옮겼다고 기록하고 있다. 영조대 간행된 《여지도서》에도 초지진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효종대 안산군에서 혁파·이전된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초지는 지명으로 남아 현재 초지동의 유래가 되고 있다.



《대동여지도》에 표시된 초지(草芝)

제6장 대한제국기

제1절 지방제도의 변화

1906년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지방제도 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통감부는 1906년 4월 지방제도 개정작업을 전담하는 기구로 지방제도조사소를 설치하고, 9월 초부터 비입지飛入地와 두입지斗入地 정리를 기본으로 하는 지방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1906년 9월 24일 칙령 제49호〈지방구역정리건〉을 공포하여 전국적으로 총 316개 대상 지역 가운데 217개 지역의 비입지와 두입지를 정리하였다.

1906년 광주부에서 광주군으로 바뀐 광주는 비입지 초부면을 양주군으로, 두입지 성곶면, 월곡면, 북방면을 안산군으로 이속하여 관할 면이 21개 면에서 17개 면으로 축소되었다. 반면 안산군은 광주부의 3개 면을 편입하여 9개 면으로 늘어났다.

19세기 말까지 광주부 관할이던 월곡면, 북방면, 성곶면은 1906년 안산군 관할로 바뀐 이후에도 리수가 21개 리에서 24개 리로 증가하고, 동리 이름도 세분화되는 등 촌락 분화가 계속되었다.

대부동 지역은 대한제국기에 남양군 관할 하에 있었다. 즉 1709년(숙종 35) 대부진大阜鎭을 설치한 이래 1895년까지 치폐를 계속하다가 남양군에 소속되었고, 1909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대부면이 설치되어, 상동, 하동, 흘곶동, 영전동, 종현동, 풍도동 등을 관할하였으며, 이듬해인 1910년에는 선감동까지 아우르게 되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부천군에 편입되었다.

그런데 통감부의 지방제도 개정 방향에는 지방구획상의 비입지와 두입지 정리만이 아니라 345개 전국 부·군을 220개로 대폭 통폐합하는 군폐합안도 담고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폐합안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총 38개 군 가운데 16개 군이 폐지 대상이었는데, 여기에는 남양군을 수원군으로 통합하고, 안산군은 과천군과 함께 시흥군으로 통합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군폐합안은 당시 반대 여론에 부딪혀 철회되기는 하였지만, 일제 강점 후인 1914년 지방제도 개정 때 상당 부분 수용되었다.

제2절 국권회복운동의 전개

1. 의병운동

1907년 8월 군대해산 이후 1909년 9월 남한대토벌 직전까지는 의병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였다. 의병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의병들의 공격 대상도 일본인이나 일진회원을 처단하는 수준을 넘어 이들을 비호하고 일제의 식민정책을 수행하는 행정관청이나 군수나 면장 등으로 확대되었다. 1907년 12월에 의병 수십 명이 총을 쏘며 관아에 들어와 군수를 위협하며 군기軍器를 강창強請하고 분파소를 부순 후 총기를 빼앗아 갔다.

군수품 보급은 친일분자 처단과 함께 의병들의 주요 활동영역이었다. 의병들이 군수품 보급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주로 친일부호나 말단행정기구인 면·동장과 이장인 경우가 많았다. 1907년 10월 11일 의병 20여 명이 안산군 논곡리에 사는 부자들을 위협하여 금품과 총포를 빼앗은 후, 논곡리에 사는 일본인 교사를 처단하려다가 40원을 받고 풀어 줬다. 1908년 3월에는 같은 마을에 사는 부호들에게 금품 제공을 강박하던 의병 유성집柳聖集 등 6명이 인화면과 그 부근에서 체포되었다. 1908년 10월 19일에도 의병 9명이 총기를 휴대하고 와리면 무곡리 윤시종尹侍從이라는 양반집에 들어가 신화新貨 100원과 명주 20자 등을 탈취해 갔다. 1908년 9월 5일에 성곡면 이리 이장 한원배韓元培 집에 의병 10여 명이 들어와 이장을 협박하고 신화 20원을 탈취했다. 1909년 4월 25일에는 총칼로 무장한 의병 8명이 잉화면 능곡리 이장 이봉구李鳳九 집을 습격하여 1원 90전을 가져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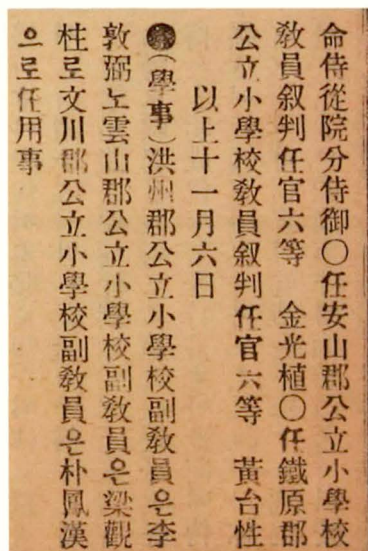
한편 남양군에서 수원군을 잇는 경기도 남서부 해안지대에서는 남양만 앞바다에 있는 대부도, 영흥도 등을 근거지로 한 수적水賊의 항일투쟁이 계속되었다. 수적은 1900년 무렵 중부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활빈당 투쟁과정에서 나타난 민중항쟁의 한 양상이었다. 일제 근

거지를 토벌할 목적으로 수원 수비대장 시모무라下村 이하 33명으로 토벌대를 편성하여 1908년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토벌전을 벌였다. 물류 이동의 통로라는 점에서 이 일대에 대한 일제의 경찰과 수비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1908년 말부터 이 지역의 의병운동은 거의 소멸해 갔다.

2. 학교 설립과 교육계몽운동

일제의 식민지적 교육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교육만이 민족의 각성과 단결을 도모하여 국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한 각계각층의 사회세력에 의해 사립학교 설립은 계속 확대되었다. 《황성신문》이나 《대한매일신보》 등 민족 신문들도 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방 유지들에게 학교 설립의 주체로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나라의 급무가 학교 설립과 인재 양성에 있다고 하여 각 부·군의 학교 설립을 강조한 〈광학조칙廣學詔勅〉이 1906년 3월 26일 반포되자, 각 지방에서는 군수가 봉칙奉勅의 의미로 학교 설립에 앞장서기도 하고, 지방 유지들이 중심이 되어 학교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안산군에는 사립학교 설립운동이 확산되기 이전에 이미 공립학교가 설립되어 있었다. 한말 개화와 정부는 신학제 제정의 일환으로 1895년 「소학교령」과 1896



안산군공립소학교 교원발령 기사
《황성신문》 1899년 11월 9 일

년 학부령 제1호 「보조공립소학교규칙」 등 일련의 법령을 제정 공포하여 공립소학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1899년 9월 안산군공립소학교安山郡公立小學校가 개교하였으며, 그해 11월 6일 김광식金光植이 첫 교원으로 발령을 받았다. 그러나 1906년 8월 「보통학교령」이 제정되면서 종래의 공교육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경기도의 경우 1906년 8월 현재 20개교에 달하던 공립소학교가 상당수 폐교하여 1909년에는 보통학교 6개교로 축소되었다. 안산군공립소학교의 경우 학제 개편에 따라 공립안산보통학교로 개칭되어 군수가 학교장을 겸임하는 체제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통감부 설치 후 일제가 교육 주도권을 장악하고 식민지 교육을 강화해 나가자, 국권회복은 교육 계몽과 실력 양성에 있다고 판단한 지식인들 사이에서 공교육을 대신할 사립학교 설립운동이 확산되어 갔다.

이 시기 안산 지역에도 다수의 사립학교가 설립되는데, 이 또한 당시 전국적으로 일어난 교육계몽운동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먼저 1907년 5월 와리면 초지동에서 사립초지보통학교가 개교하였다. 이 학교는 초지동에 사는 전 주사主事 이민선李敏善이 세운 학교로 설립 당시 학생이 40~50명에 달하였다. 초지보통학교는 설립자이자 교감인 이민선의 노력으로 교세가 확장하고 조형옥趙滢玉, 유철수劉轍洙 등이 교사로 활동하는 가운데 1909년 4월 15일 개교 3주년 기념식을 성대하게 거행하여 주민들로부터 환호를 받았다.

초지보통학교가 개교한 1907년 와리면 신각리에서는 신영학교新英學校가 문을 열었다. 윤세영尹世榮 등 7명이 발기하여 세운 이 학교는 40여 명의 학생을 가르쳤다. 1908년에는 신각리에 사는 전 감찰監察 함원식咸元植이 같은 마을 사는 이규신李奎信과 합심하여 이미 운영 중에 있는 신영야학교新英夜學校에 병설하여 신영주학교新英晝學校를 설립하여 학교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부담하는 한편, 교사校舍를 신축하자 학생 수가 날로 늘어나 6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와리면에는 원상리에 1908년에 설립한 사립대성학교私立大成學校도 있었다. 주간반과 야간반을 두어 첫해에 52명을 수용하였다. 안산군 성곶면 구룡동에서는 전 참판 김용진金容鎭이 동민들과 협의하여 재정을 모아 사립 소학교를 설립하고 청년자제를 교육하였다.

이처럼 통감부의 식민지 교육정책에 저항하고 교육계몽을 통해 국권을 회복하려는 학교설립운동에 안산 지역도 적극 동참하였다. 이 시기 사립학교 설립운동은 일차적으로 군수를 비롯한 지역 유지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초지보통학교를 설립한 전 주사 이민선, 신영학교의 전 감찰 함원식 등은 모두 전직 관료들이었다. 그러나 지역 유지만이 학교 설립을 주도한 것은 아니었다. 와리면 원하리에서는 정태완鄭泰完의 부인 유씨가 남편의 학비가 곤궁하자 바느질값으로 학비를 부담하여 부인계의 모범이 되기도 하였다.

제7장 일제강점기

제1절 1910년대 지방행정구역 통폐합

1910년 10월 대한제국을 대신하여 이 땅에 이민족 권력인 조선총독부가 들어섰다. 일제는 합병과 동시에 조선통치기구로서 기존의 통감부를 대신하여 조선총독부를 설치했다.

일제가 지방행정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것은 1914년의 일이며, 그 핵심은 군면郡面의 통폐합 조치에 있었다. 이를 통하여 종래 317개에 달하던 군이 220개로, 4,336개의 면이 2,522개로 각각 축소되었다. 이와 함께 부면府面 아래의 동리 명칭과 구역도 대폭적으로 통폐합되었다. 총독부가 군면 통폐합을 한 핵심적인 이유는 통폐합에 따른 행정경비 절감과 기존 지방사회의 자치질서를 와해하고 일사불란한 중앙집권적 식민통치 체제의 정비에 있었다.

행정구역 최말단 기구로서 면의 행정력을 강화하려는 총독부의 정책 목표는 1917년 제령 1호 〈면제面制〉의 제정·시행으로 나타났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면이 독자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동리장洞里長에 대신하여 구장區長을 두고 무급으로 면의 행정을 보조하도록 하였다.

이상에서 살폈듯이 일제는 강제병합과 동시에 식민통치 조직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선인들의 의사와 조선사회의 관행이 모두 부정되고 일제의 효율적인 식민통치를 위하여 지방행정이 새롭게 재편된 것이다.

1910년대 일제의 행정구역 통폐합 조치는 전국의 행정구역과 지역명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안산시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1914년 군면 통폐합 조치로 인하여 ‘안산군’이란 명칭이 사라지고 인근의 다른 군에 흡수 통합되는 큰 변화를 겪었다.

일제는 먼저 1913년 12월 29일 「조선총독부령」 제111호를 발포하여 안산군의 월곡면·북방면·성곶면을 제외한 안산군 일원을 시흥군에 통합시켰다. 그리고 월곡면·북방면·성곶면은 수원군에 이관시켰다.

군명의 개칭에 이어, 1914년 3월 「경기도령」 제3호를 발포하여 안산 지역의 면 명칭과 구역의 통폐합을 단행하여 1914년 4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다. 전국적인 군면 통폐합 조치의 일환으로 종래의 안산군 군내면·인화면·초산면을 합하여 시흥군 수암면秀岩面으로, 마유면·대월면·와리면을 시흥군 군자면君子面으로, 성곶면·북방면·월곡면을 수원군 반월면半月面으로, 남양군 대부면을 부천군 대부면으로 개편하였다. 각 면별 개편 상황은 [표 1]과 같다.

1914년 개편된 안산의 행정구역

1914년 이전			1914년 이후		
군명	면명	동리명	군명	면명	동리명
안산군	군내면	수암리(秀岩里), 서정리(西亭里)	시흥군	수암면	수암리
		장상리(章上里), 동곡리(東谷里)			장상리
		부곡리(釜谷里), 신리(新里)			부곡리
		양상리(楊上里), 양하리(楊下里)			양상리
		성포리(聲浦里), 점성리(占星里)			성포리
		장하리(章下里)			장하리

1914년 이전			1914년 이후		
군명	면명	동리명	군명	면명	동리명
안산군	인화면	북곡리(北谷里), 능곡리(陵谷里)	수암면	수암면	능곡리
		광곡리(廣谷里), 화정리(花井里)			화정리
		와상리(瓦上里), 와하리(瓦下里)			와 리
		고잔리(古棧里)			고잔리
		월입피(月入陂)			월피리
	초산면	조남리(鳥南里), 제청리(祭廳里)			조남리
		목감리(牧甘里), 율포리(栗浦里)			목감리
		물왕리(物旺里), 상직리(上職里)			물왕리
		산현리(山峴里), 궤곡리(櫃谷里)			산현리
		중직리(中職里), 하상리(下上里)			하상리
	마유면	광석리(廣石里), 하하리(下下里)	시흥군	군자면	광석리
		논곡리(論谷里)			논곡리
		하중리(下中里)			하중리
		조현리(鳥峴里), 장상리(長上里)			장현리
		장하리(長下里), 조촌리(鳥村里), 응곡리(鷹谷里)			장곡리
	대월면	월동리(月東里), 월서리(月西里)			월꽃리
		정왕리(正往里), 오이리(烏耳里)			정왕리
		죽율리(竹栗里)			죽율리
		구정리(九井里), 산북리(山北里)			군자리
		거모포(去毛浦), 석곡동(石谷洞)			거모리
	와리면	선부동(仙府洞), 달산리(達山里)			선부리
		원당포(元堂浦), 초지동(草芝洞)			초지리
		모곡리(茅谷里), 원상리(元上里)			원곡리
		선곡리(船谷里), 신각리(新角里), 성내리(城內里), 적길리(赤吉里)			신길리
		무곡동(茂谷洞), 성두리(城頭里)			성곡리
	월곡면	이목동(梨木洞), 능내리(陵內里)			목내리
		원하리(元下里), 시우동(時雨洞)			원시리
		사사리(沙土里)	수원군	반월면	사사리
		오룡동(五龍洞), 당수리(棠樹里)			당수리
		상초평(上草坪), 하초평(下草坪)			초평리
		월암동(月岩洞), 일리동(一里洞), 대대동(大垔洞)			월암리
		입북리(笠北里)			입북리
	북방면	대야미(大夜味), 속달1리(速達一里)			대야미리
		속달2리, 속달3리			속달리
		둔대동(屯垔洞)			둔대리
		도마교리(渡馬橋里)			도마교리

1914년 이전			1914년 이후		
군명	면명	동리명	군명	면명	동리명
안산군	북방면	건건리(乾乾里)	수원군	반월면	건건리
		팔곡1리(八谷一里)			팔곡1리
		팔곡2리(八谷二里)			팔곡2리
	성곶면	일리(一里)			일리
		이리(二里)			이리
		삼리(三里), 사리(四里)			사리
		분오리(本五里), 분오리(分五里)			분오리
남양군	대부면	선감동(仙甘洞: 선감도, 탄도)	부천군	대부면	선감리
		풍도(豊島) 일원			풍도리
		영전동(營田洞: 반도, 외지도), 하동(下洞) 일부			동리
		용곶동(龍串洞: 불도, 궤도, 표단도), 상동(上洞) 일부			남리
		종현동(鍾懸洞: 춘두포, 구봉리), 상동·하동 일부			북리

출전: 越智唯七, 《新舊對照 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1917.

이처럼 1914년 군면 통폐합 조치로 인하여 ‘안산군’이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관할 구역은 인근의 시흥군, 수원군 등으로 분할·흡수되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안산’이라는 이름이 그 이후로도 여전히 많이 사용되었고, 후에 시명과 동명으로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이다.

제2절 3·1운동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항일투쟁은 다방면으로 전개되었는데, 여기서는 1919년 3·1운동에 대해 살펴보자. 안산 지역에서는 수암면, 군자면, 반월면, 대부면 지역에서 모두 만세시위가 벌어졌으며, 특히 수암면과 군자면의 시위에는 1~2천 명이 집결한 대규모 만세운동이 일어난 자랑스런 고장이다.



수암면 3·1운동이 벌어졌던 비석거리(1970년대)

1. 수암면의 비석거리 시위

수암면은 옛 안산치소安山治所가 있던 곳으로, 면사무소와 경찰주재소, 보통학교, 향교 등이 모여 있었다. 그 중심가인 비석거리[碑立洞]에 1919년 3월 30일 오전 10시 18개 리에서 2,000여 명의 군중이 모였다. 1916년 현재 수암면의 인구는 1,592호 8,120명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남자가 4,112명이었다. 남자인구 가운데 노인과 아동들을 제외한다면 2,000여 명의 군중이라는 숫자는 수암면의 청장년 남자는 거의 다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전날 읍내의 비석거리에 모이라는 통문을 각 고을의 이장에게 돌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었다. 이날의 시위는 유익수와 윤병소가 군중의 선두에 서서 태극기를 휘두르면서 지휘 인솔하여 수암면 읍내에 있는 수암경찰관주재소·수암면사무소·안산보통학교 및 안산향교 앞으로 몰려가서 ‘조선독립 만세’를 부르며 시위를 벌였다. 각 지역에서 시위대를 인솔하고 온 상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윤병소尹秉昭는 29일 화정리花井里에서 이봉구李鳳九로부터 비석거리에서 만세시위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자기 동리 사람 30여 명과 함께 태극기를 만들어 시위 대열에 참여하였다.

월피리月陂里에서 잡화상雜貨商을 경영하고 있던 유익수柳益秀는 성포리聲浦里 주민 30여 명 가량이 “독립만세를 부르기 위하여 비석거리로 간다”고 자기 집 앞을 지나가자 이를 목격하고 이들과 함께 선두에 서서 비립동碑立洞으로 향하여 갔다. 이미 그곳에는 약 2,000명 정도 모여 있었다. 성포리 구장이 유익수에게 “이 군중 속에는 난폭한 자도 있으니 만일 주재소 등에 폭행을 가하여도 곤란하니 당신이 좀 조정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자, 그는 군중을 지휘하여 도살장으로 가서 홍순철로부터 그가 만든 태극기를 받아 가졌다. 이때 순사가 “읍내로 가지 못하니 해산하라”고 명령하였으나 앞서 홍순철이 각리各里의 인원을 조사하고 또한 만세를 부르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읍내로 가서 만세를 부르라”고 격려했고, 군중들도 읍내로 가려고 애쓰고 있었으므로 유익수도 태극기를 휘두르며 군중을 지휘하여 읍내로 들어가서 수암경찰관주재소·수암면사무소·안산보통학교 및 안산향교 앞으로 행진하였다.

와리瓦里에 사는 홍순칠洪淳七은 3월 30일 유익렬柳益烈의 하인 임학신林學信에게서 “그날 ‘조선독립 만세’를 부르니 수암리 비석거리로 모이라”는 취지의 통지를 받고서 동리 허치선許致善 집에 모여 그 집에서 30명을 인솔하고서 수암면 남쪽 발까지 인솔하여 갔다. 그곳에는 이미 1,200~1,300명이 모여 있었고, 와리의 대지주 홍순칠은 후일 불참자를 문책하기 위해 참석인원을 조사하였다. 이때 유익수가 선두에 서서 읍내 쪽으로 가니 군중도 눈사태가 난 듯이 행진하므로 홍순칠도 군중을 따라서 읍내에 있는 주재소·사무소·안산보통학교 및 안산향교 앞으로 가서 만세를 불렀다. 재판정에서 홍순칠은 “나는 원래 조선독립을 희망하는 사람인데 독립을



유익수 선생 묘(부곡동)



홍순철 선생 공적비(와동체육공원)

기도하려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시위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29일 국유지 소작인 수 명에게 그 날 각 리各里에 돌린 격문 내용을 알리고 “조선이 독립하면 국유지는 소작인의 소유지가 되니, 이 때 만세를 부르는 것이 득책이다”고 권고하여 소작인을 격려하였다 한다.

산현리의 윤동욱尹東旭은 볼 일이 있어서 수암면 화정리에 갔다가 능곡리 농민으로부터 “비립동에서 만세를 부른다”는 것을 듣고 자신이 만세를 부르면 조선독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비석거리로 갔다. 그곳에는 약 1,000명 정도의 군중이 모여 있었다. 그 때 순사가 “해산하라! 그러지 않고 읍내로 갈 때는 발포할 지도 모른다”고 하였으므로 모인 군중들이 한때 분규를 일으켰으나, 결국 모두가 읍내쪽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이에 윤동욱은 선두에 서서 군중의 기세를 돋우면서 읍내의 주재소·보통학교·면사무소 등의 앞에 이르러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그는 공립보통학교 앞에서 순사 임건호任健鎬에게 “당신도 조선인이니 만세를 부르라”고 권하였다. 관리가 만세를 부르면 시위운동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독립운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순사에게 “만세를 부르라”고 강요하였으나 순사는 불응하였다.

화정리의 김병권金秉權은 3월 30일 화정리에 마을 사람 30명 가량이 모여 있어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만세를 부르기 위하여 비립동으로 간다”고 하여, 그들과 함께 비석거리로 갔더니, 약 1,000명 정도 모여 있었다. 위 군중 속에 순사의 해산명령에 불복하고 태극기를 떠받들고 선두에서 행진하는 자가 있어서 이들과 같이 읍내로 행진하여 주재소·보통학교·면사무소·안산향교 앞에서 대한독립만세를 고창高唱 하였다.

수암리秀岩里의 이봉문李奉文은 자기 마을 앞에서 진행된 만세시위에 솔선하여 참여한 뒤 이날 밤 시위 참여에 소극적이었던 구장 집에 다른 주민들과 같이 몰려가 항의하기도 하였다.

수암면의 만세시위를 주동했던 유익수, 윤병소, 홍순철, 김병권, 이봉문, 윤동욱 등은 1년에서 6개월 옥고를 치르거나, 감형되어 태 90대를 맞기도 하였다.



2. 군자면의 시위

일제강점기의 군자면은 거모리(현 시흥시 거모동)에 면사무소와 주재소가 위치하고 있어 이 지역 주민들은 이곳으로 집결하여 만세를 불렀다.

장곡리長谷里 주민들이 3월 29일 만세시위를 벌인 데 이어, 4월 4일 오전 11시경 주재소 부근에 약 1,000여 명이 집합하였다. 이미 3일 “거모경찰관주재소 및 군자면사무소를 불 질러 부숴 버리자”라는 격문이 각 동리에 배포되었으며 이 첩지貼紙가 하루 전에 일본경찰에게 발견되어 영등포로부터 순사 6명, 군인 7명이 무장하고 이를 막기 위하여 파견되어 있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군자면사무소(현 군자초등학교 옆) 앞에서 원곡리元谷里에 사는 강은식姜殷植이 수백 명의 군중 속으로 들어가 태극기를 휘두르며 주민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쳤다. 격렬한 기세로 주민들이 달려들자 일본경찰은 총을 쏘아 이를 해산시키려하였다. 그러나 일부는 흩어졌으나 시위는 계속되었다. 같은 때 죽율리竹栗里에 사는 김천복金千福도 동리 사람들을 설득하여 이장 집에 모이게 한 다음 “조선독립 만세”를 외치기 위하여 위의 거모리에 있는 면사무소 부근에 집합하라”고 권한 다음 이민里民 수십 명을 모아서 거모리로 향하였다. 도중 총소리가 나자 일부 주민이 흩어지기는 하였지만 김천복과 몇몇 사람들은 길을 우회하여 만세시위에 합세하였으며, 면사무소 및 주재소 부근에 집합한 수백 명의 군중에 함께 ‘조선독립 만세’를 외쳤다.

선부리仙府里에서도 3월 31일 다수의 군중이 모여 면사무소와 주재소를 습격하며 만세시위를 벌였으며 장현리長峴里의 서당 생도 권희權禧와 장곡리의 농민 장수산張壽山 등은 4월 6일 권희의 집에서 ‘비밀 통고’라는 제목 아래 또한 “조선이 일본에 합병된 이래로 받은 10년간의 학정에서 벗어나 독립하려 한다. 우리들은 이 기쁨에 대하여 4월 7일 군자면 구舊 시장에서 ‘조선독립 만세’를 같이 부르려고 한다. 각 이민은 태극기 1개씩을 휴대하고서 와서 모이라”, “조선이 일본에 합병된 이래로 받은 10년간의 학정虐政에서 벗어나자”라고 격문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 격문을 각 동리에서 차례로 회람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시한 뒤 이를 동리 구장의 조카 이종영李鍾榮의 집 앞에 놓아두어 많은 사람이 회람하도록 하였다. 또한 장곡리 구장 이덕증李德增은 이를 회람한 뒤 월곡리月串里 구장에게 전달하였다.

이종진李鍾振은 재판과정에서 “4월 5일 오후 3시 경 밭에서 돌아오는 도중 군자리君子里에 가까운 장곡리 남쪽 고개 길가 봉투 속에 1통의 문서와 작은 돌이 봉하지 않은 대로 들어 있었다. 글자를 모르므로 이종형李鍾亨이란 자에게 읽어 달랬더니 ‘4월 7일 만세를 부르니 면사무소에 집합하라’는 사발통문沙鉢通文이라고 하며 이것을 장곡리 이장 이덕증李德增에게 전해 주었다”고 하였으며, 이덕증은 4월 5일 오후 6시 경 이민里民 이응수李應洙가 이종형으로부터 “구장에게 교부하라”고 하였다 하며 〈비밀통고문秘密通告文〉 1통을 자기에게 주므로 이것을 받아 가지고

읽어 보니까 “오는 7일 대한독립 만세를 높이 부를 터이니 구 시장 자리에 면민은 집합하라. 모여 오지 않는 자는 후일 위해(危害)가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서 자기는 후환이 두려워 곧 그 문서를 지정되어 있는 이웃 월곶리(月串里) 구장 앞으로 하인을 시켜서 보낸 일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위 모의가 일본 경찰에 발각되고 주모자들은 체포되고 말았다.¹⁾



군자면 만세시위 기념비

군자면의 만세시위를 주동한 강은식, 장수산, 권희 등은 1년에서 10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3. 반월면의 만세시위

4월 1일에는 반월면 반월장(半月場)에서 600여 명의 주민이 평화시위를 벌였다. 시위 군중은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른 후 북으로 군포장(軍浦場), 서로 구룡동(九龍洞), 남으로 반월리·본오리·범실·들묵 쪽으로 가면서 만세를 부르다가 경찰과 면장이 온순하게 제지하는 바람에 해산하였다.

수암면 비석거리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던 유익수는 “인근 수원군 반월면에서 만세시위가 일어나자 그곳으로 가서 반월면 서기와 만나 어제 수암리에서 시위운동을 할 때 지휘한 모양을 말하였더니, 그 면서기가 ‘그러면 당신께 오늘 지휘를 부탁한다’고 하였으므로 나는 군중 앞에서 폭행·협박을 하지 말도록 주의시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고 크게 기세를 돋군 뒤 무사히 해산하여 폭력화되지 않도록 주민들을 설득하여 비폭력 시위로 이끌었다.”²⁾고 진술하였다.

1)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5, 1971, 278~279쪽.

2) 유익수의 재판기록에 따르면 수암면 비석거리 시위가 있던 다음날(3월 31일) 자신이 주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앞뒤 정황을 볼 때 유익수가 주도한 시위는 4월 1일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4. 대부도의 만세시위

3월 31일 대부면 신남리新南里에 사는 김윤규金允圭·노병상盧秉相·홍원표洪元杓 등은 영전리營田里사직장에서 만나 만세시위를 거행할 것을 약속하고 이날 밤 11시에 김윤규 집에 모여 포묵으로 태극기를 만들었으며, 이튿날 4월 1일 오전 3시경 같이 집 밖에 나가 ‘조선독립 만세’를 외치고, 이로 인하여 모인 이민居民 10여 명과 함께 그 곳의 주막집 앞에서 태극기를 휘두르면서 ‘조선독립 만세’를 같이 불렀다. 이 시위의 주모자들은 징역 10월의 옥고를 치렀다.



대부도 3·1운동 기념비

제8장 현대사회

제1절 광복과 6·25전쟁

1. 광복 이후

1) 광복 직후 안산의 상황

조국의 광복 소식은 안산 지역 전체에 전해졌으며 안산 주민들은 광복의 기쁨을 만끽했다. 당시 안산 건국준비위원회에도 초기에는 좌익과 우익 모두가 참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

다. 안산에서도 인민위원회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인민위원회는 1946년 1월 7일 선거를 거쳐 공식적으로 결성되었는데, 인민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결성되기 전부터 이미 인민임시자치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져 실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1945년 미군정의 내부보고서에 의하면 안산은 경기도 내에서 포천, 수원, 용인, 평택과 더불어 인민위원회



광복을 맞아 환호하는 국민들

가 청사를 인수하여 실제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광복 이후 1945년 9월 한반도에 진주한 미군에 의해 군정軍政을 실시하게 되었다.

안산에는 1945년 10월 28일 메이플 대위가 이끄는 총 5명으로 구성된 제60군정중대 소속 파견반이 배치되었다. 당시 제60군정중대는 수원에 본부를 두고 안산을 비롯해 여주, 용인, 안양, 안성, 평택, 이천 등을 관할하였는데, 그 중 5명으로 구성된 안양분견대가 안산을 담당하였다.

안산의 군정도 미군정의 한국화 정책에 영향을 받아 미 군정관에는 미군 장교가 임명되고 군수와 경찰서장에는 한국인이 각각 임명되어 안산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게 되었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 경기도 대의원 선출은 1946년 10월 29일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2부 21군 대표 46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다. 안산이 속한 제5구에서는 평택군수가 남조선과도입법의원 경기도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이로써 안산군정도 어느 정도 광복 직후의 혼란상은 타개하는 듯하였다.

한편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과가 국내에 보도되면서 신탁통치에 대한 찬반 시위가 전국 각지에서 전개되었다. 점차 광복 직후의 혼란을 수습하고 있던 안산 지역에서도 탁치 문제로 다시 큰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었다. 안산 우파 인사들은 반탁 쫓기대회에, 좌파 인사들은 찬탁 쫓기대회에 각각 참석하여 집회상황과 지지도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기 시작하였고, 안산 주민들은 탁치 문제를 놓고 다시 대립하였다. 이로써 광복 직후 안산 지역에서는 청년단체와 주민들이 친일 청산문제와 좌우이념, 그리고 탁치 문제를 놓고 나뉘어져 혼란이 초래되었다.

2) 정부의 수립과 안산의 상황

남한 정치지도자들은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는 단독정부수립 지지 세력과 김구·김규식을



중심으로 하는 남북협상을 통한 통일정부수립 지지 세력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결국 유엔이 의결한 대로 1948년 5월 10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남한에서만 실시한 5·10선거에서 198명의 제헌국회의원이 선출되었다. 선거 당시 전국적으로 총선거 반대 운동이 전개되었으며 수암지역에서도 투표소가 소각되는 등 반대운동이 있었다. 선거 결과 안산 지역이 속해 있는 시흥군에서는 무소속의 이재형이 당선되었다.

제헌국회는 7월 17일에는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공포하고 이 헌법에 의거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시영을 선출하고, 8월 15일 대한민국의 수립을 내외에 선포하였다. 한민족은 광복과 함께 통일국가를 건설할 기회를 갖게 되었으나, 강대국의 전후처리 방침에 의한 38도선의 획정으로 인해 결국은 38도선을 경계로 남에는 대한민국, 북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됨으로써 민족과 국토의 분단을 고정화시키고 말았다.

2. 6 · 25전쟁과 수리산전투

북한에 의한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이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하였다. 북한군은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였고, 안산 지역에 처음 출현한 것은 1950년 7월 3일경이었다. 「시흥군내 각 면 당부 정치정세 보고철」(1950년 8월, 선전선동부)에 의하면, 시흥군의 주요 당간부로는 군당위원장에 채석우, 선전부장에 이규백, 수암면 당위원장 박성수 등이 있었으며, 각 면 당위원회는 1950년 7월 7일부터 조직되기 시작하였고 이와 함께 민천, 여맹, 농맹 등의 사회단체들도 뒤이어 조직되었다. 이로서 안산 군민은 약 두 달 간 공산당의 치하에 있게 되었다.

안산 지역에서의 전투는 1951년 공산군의 공세로 국군과 유엔군이 평택-삼척선으로 철수한 후 반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주로 수리산을 놓고 뺏고 빼앗기는 공방전이었다. 안산 지역은 유엔군이 설정한 제2통제선에서 제4통제선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공산군은 마산 주변에 연대 규모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었다. 수리산은 영등포로 통하는 국도와 반월리를 거쳐 사또는 인천으로 통하는 보조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감제고지였다. 국군 제15연대, 미군 제25사단 제35연대, 터키여단으로 편성된 공격제대는 1월 31일부터 안산 북동쪽의 수리산-모락산을 공격하였다. 공격제대는 첫날 수리산 부근에서 적의 강력한 저항을 예상하였으나 의외로 쉽게 무혈점령하였다.

그러나 공격제대는 이때부터 중공 제150사단과 주야로 수리산의 주인이 바뀌는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펼치게 되었다. 사단은 적의 계속되는 증원과 야간공격, 수류탄공격은 물론 터키여단과의 언어 소통장애로 인한 협조된 공격이 부진하자 사단예비인 미 제27연대를 터키여단 쪽으

로 투입하여 수리산 일대의 일부 진지를 점령하고 작전의 주도권을 잡았다.

이때 국군 제15연대도 31일 미 전차의 지원 하에 2개 대대 병진대형으로 모락산을 공격하였다. 미군 제35연대의 수리산 공격이 지연되어 일시 방어태세로 전환하기도 하였지만 공격개시 5일 만에 치열한 백병전을 치루며 이를 점령하였다. 이후 유엔군은 1951년 2월 4일까지 수리산을 비롯한 주변의 주요 감제고지를 점령하고, 한강선 진출을 목전에 두었다.

안산 지역은 유엔 항공기들이 인천상륙작전을 앞두고 공산군의 예상 집결지 일대를 집중적으로 폭격했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다. 안산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는 현존하지 않지만, 당시 안산이 속해 있던 시흥군 전체의 통계를 통하여 그 피해를 가늠해 볼 수 있다. 1956년판 《경기도지》에 의하면, 1951년 9월 1일 현재 시흥군(남면, 수암면, 군자면, 안양읍, 서면, 과천면, 동면, 신동면)의 인명피해는 사망 1,888명, 납치가 165명, 부상이 1,022명 등 총 3,165명이었다.

제2절 1970년대 새마을운동과 농촌사회의 변화

1. 새마을운동의 농촌개발 및 농민동원 전략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의 유시로 '새마을가꾸기운동'이 시작되면서 새마을운동의 막이 올랐다. 새마을운동 이전에도 일제강점기의 농촌진흥운동을 비롯해 1950년대 이래로 진행된 지역



폐허가 된 안산국민학교에 세워진 토막교실



개발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의 방식과 논리는 상당 부분 앞선 사업들과 연속성을 가지는 것이었다.

새마을가꾸기사업이 기대 이상으로 큰 성과를 거두자, 1972년 정부는 운동의 전개 방향과 추진 방향을 체계화하고 새마을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서 전개했다. 농촌의 환경개선사업으로 시작되었던 새마을운동은 환경개선, 정신계발, 소득증대 등으로 확대되었고, 농촌을 넘어 '도시새마을운동', '공장새마을운동' 등으로 확산되었다.

1972년 발간된 《새마을총람》에 실린 새마을 현황을 보면, 새마을지도자의 연령은 30~40대가 대부분이었다. 성공사례로 주목된 지역들에서 유사한 모습이 확인된다. 현 안산 지역 내에서는 대부도 남2리, 선감리, 시흥군 군자면 원시1리 등의 성공사례담이 확인된다. 1972년 당시 이들 지역의 새마을지도자의 연령은 각각 36세, 35세, 42세였다. 새마을지도자와 더불어 마을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던 이장 역시 젊은 층의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농촌 근대화를 열망하는 새로운 세대들은 선감도의 경우처럼 개별적으로, 또는 4H운동과 같은 집단적인 움직임들로 자라나고 있었다. 새마을운동이 활성화되고 새마을지도자 및 주민들의 자발성이 극대화된 마을에는 그 중심에 새롭게 성장한 세대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1973년 정부는 지원 전략을 더욱 체계화했다. 전국의 마을을 발전 정도에 따라 기초, 자조, 자립마을로 구분해 차별적인 지원을 통해 보다 높은 단계로의 발전을 유도했다. 1972년 경기도는 총 2,312개 부락에서 285개 부락을 완성부락으로 선정해 150만 원씩의 시상금을 주었다. 이 완성부락은 대체로 자립마을과 일치한다.

1972년 당시 안산 지역에서는 7개 자립마을과 다수의 기초마을, 자조마을이 있었다. 그후 1979년 반월출장소에 수용된 41개 마을은 모두 자립마을로 분류되었다. 1980년 정부는 새마을구분을 자조, 자립, 자영마을로 변경했다. 당시 총 41개 마을 중 자립마을은 39개, 자영마을은 2개로 분류되었다. 자영마을은 모두 수암에서 나왔다. 대부면의 경향도 유사했다. 웅진군의 《통계연보》에 따르면 1980년 현재 대부면 18개 마을 중 자립마을은 17개, 자영마을은 1개로 나타난다.

2. 새마을가꾸기사업과 생활·주거환경의 변화

1970년 10월 정부는 3만 3,267개의 행정 동리洞里에 마을당 시멘트 335부대를 지원하면서 '새마을가꾸기운동'을 일제히 전개했다. 새마을가꾸기운동은 마을진입로·소하천·소지류의 정비, 공동우물·공동빨래터·퇴비장 설치, 마을 식수植樹 등 농촌 환경개선사업에 집중되었다. 새마을운동은 시간이 흐르면서 농촌에서 전개되고 있던 개발사업, 소득증대사업, 농민교육

등을 모두 ‘새마을’이라는 이름으로 포괄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의 지배적인 기억 중 하나는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라는 〈새마을노래〉의 가사처럼 지붕개량이나 마을길 넓히기, 농로 조성과 같은 농촌의 외적 환경의 변화였다. 그것은 새마을운동이 ‘새마을가꾸기사업’이라는



새마을운동 마을길 넓히기 작업

농촌환경개선사업으로부터 시작된 것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새마을운동이 가장 집중한 분야였고, 실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남긴 부분이었다.

시흥군 사례를 살펴보면, 1971년 166개 행정 동리 중 110개 마을에서 새마을운동이 전개되었다. 화성군과 시흥군에서 새마을가꾸기사업은 1977~1978년에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77년 당시 수암면과 군자면은 새마을가꾸기사업의 실적, 참여인원, 지원내역 등에서 시흥군 내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보여주었다. 1977년 시흥군 새마을가꾸기사업에서 가장 높은 실적은 보인군자면은 정부지원 1,084만 원과 주민부담 2억 5,384만 원을 투입해 4,088건의 사업실적을 올렸다. 수암면에서도 정부지원 1,084만 원과 주민부담 8,415만 원을 들여 3,076건의 사업실적을 올렸다. 반월면의 경우에는 다른 해에 비해 1978년에 많은 사업이 시도되었다.

새마을가꾸기사업은 공동이용시설, 도로 등을 정비하는 환경개선사업과 농로, 하수구, 농업용수 등을 정비하는 생산기반사업을 포괄했다. 환경개선사업에서는 마을회관, 경로당, 공동변소, 공동작업장 등 마을의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고,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 소교량 설치 등 도로정비사업이 행해졌다. 또한 생산기반사업의 일환으로 농로를 포장·확충하고,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소하천 정비, 도수로·양수장 설치, 보 설치 등이 실시되었다.

마을의 공동시설 확충이나 도로의 확·포장 등의 생활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주거환경 역시 크게 변했다. 초기에는 주로 초가지붕을 개량하는 데 집중했으나, 1977년부터 마을 전체의 구조 개선과 함께 표준주택을 보급하는 취락구조개선사업이 추진되었다. 1978년의 경우, 반월면, 수암면, 군자면의 주택개량 실적은 각각 48동, 83동, 230동이었다.

새마을운동의 결과 농촌의 외형은 크게 변했다. 마을길 넓히기, 농로 조성, 공동시설 확충, 소하천 정비, 마을조림 등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였고, 지붕개량, 주택개량, 취락구조개선사업 등을 통해 농촌의 주거환경은 크게 개선되었다. 이 시기 농어촌 전화사업을 통해 대부분의 농어



촌에 전화가 가설되었다. 새마을운동을 통한 농촌의 생활환경 및 주거환경의 개선은 농민의 입장에서 근대적이고 도시적 삶에 대한 농민의 욕망을 어느 정도 만족시켜 주는 것이었으나, 농가의 부채는 증가했고 도농 간의 경제적, 문화적 격차는 도리어 확대되었다.

제3절 시의 성립과 발전

1. 반월공업단지 조성 and 안산시 성립

안산시의 성립을 설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론해야 될 것이 반월공업단지(이하 반월공단) 조성이다. 반월공단 조성 이전 안산 지역은 당시 여느 지역과 다름없는 한적한 농어촌 지역에 불과했으나, 공업단지 조성 이후 본격적인 도시화가 진행되어 지금 안산시의 토대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안산은 1976년까지 농업이나 어업 등 1차 산업 인구가 73%를 차지하는 전형적 농어촌 마을이었다. 그러나 1986년에는 2차 산업 취업자가 82.6%를 차지하는 산업도시로 변화했다. 안산의 공업 단지 조성은 1977년에 추진되어 10년 만인 1987년에 완공되었다. 그리고 2008년 현재 3,752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고용 인력이 9만 5,025명에 달하는 대규모 공업단지로 성장했다. 그 시작이었던 반월공단은 1977년에 한국 최초의 신도시이자 계획도시인 안산신도시의 건설과 함께 조성되었다.

반월공단 조성의 배경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과밀 집중이 커다란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서울 지역 인구분산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식 중의 하나가 공장 이전이었다. 특히 공해공장의 서울 외곽 이전은 명분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용이점이 많아 주목되었다. 공장 이전을 위해서는 이전할 만한 공업단지 조성이 절실했다.

반월은 서울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사업의 성공은 확실한 편이었으나 수도권 분산 정책의 취지를 살린다는 측면에서는 약간 무리가 있었다. 그러나 사업성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정부에 의해 1976년 9월 21일 반월이 최종 공업단지 후보지로 결정되었다. 당시 결정된 기본 개발지침은 서울의 공업을 분산 수용하고, 서울의 인구분산 및 주택문제를 해결하며, 독립된 자족완결적 도시를 지향하고, 서해안 개발의 거점 확보와 신도시 건설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 등이었다.

반월공업단지 개발의 특징은 지방자치단체 대신 산업기지개발공사(이하 산개공으로 약칭)가



반월신공업도시 조성계획

개발의 주체가 되었다는 점이었다. 이는 곧 국가가 직접 개발 주체로 나서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으며, 그만큼 공업단지 개발의 의미가 국가적 사업으로 설정되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산개공이 주체가 되고 정부 7개 부처가 협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반월공업단지 조성사업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일이었다.

안산시도시 개발의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전면매수방식'이 최초로 적용된 점에 있었다. 기존의 도시개발에서 자주 사용되던 토지구획정리 방식과 달리 신도시 개발에 소요되는 토지를 전면 매수하여 개발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한국 지역개발사업에 있어 획기적인 일이었다. 이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 모두가 소유 재산 모두를 처분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고, 원주민들의 이주 및 정착 과정에서 커다란 변화를 경험해야만 했다.

반월공단의 특성은, ①국내 유일한 산업공원형 공업단지로, 공장과 주거지역이 공해 차단 녹지대 및 단지의 34%에 달하는 자연녹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②공장과 종업원의 주거지가 분리되어 있는 점, ③100명 이하의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 전문단지조성인 점, ④협동화 사업단지로 업종 또는 유사한 업종의 소규모 업체들이 집단으로 공해방지시설 및 실험실, 식당, 급수설비 등의 대단위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인해 업체의 운영비 절감이 가능하고, 첨단시설과 고가 장비 등의 공동구입으로 원가 절감 및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점 등이었다.

우여곡절이 있기는 했지만 반월신공업도시 건설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1986년 안산시 승

격으로까지 연결되었다. 1978년 2만 명이 채 안 되던 인구는 1986년 시 승격을 전후해 13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급속 성장하였다. 공장 입주 또한 순조롭게 진행되어 1986년에는 입주 기업이 1,000개가 넘었고, 가동공장은 666개에 달하게 되었다.

이처럼 안산시 성립은 반월공단 조성 및 신도시 건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수도권 분산대책으로 이루어진 신도시 건설이 안산시의 기원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은 새로운 공업도시의 탄생이자 기존 거주 원주민들에겐 커다란 시련이기도 했다.

2. 안산시의 발전과정과 신도시 조성

시 승격 이후 안산시의 발전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인구 규모의 급팽창이었다. 1986년 1월 1일 시 승격 이후 10년간의 인구증가율은 무려 18.3%였다. 이는 같은 기간 한국의 평균 인구증가율이 2% 미만이고 경기도의 연평균 증가율이 4.6%인 것과 비교하면 4~10배에 이르는 폭발적인 것이었다. 특히 1991년의 인구증가율은 무려 24%를 기록해 전국



시 승격 기념식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다. 확대일로에 있던 안산은 계획규모 이상의 인구가 유입됨으로써 도시 환경이 날로 악화되었다. 처음 20만으로 계획되었던 안산의 인구는 1995년에 이미 50만 명을 넘어섰고 2010년 12월 현재 75만 명을 넘었다. 이러한 인구 증가는 애초 계획되었던 도시기반시설 및 각종 생활시설의 부족을 불러왔고 난개발의 후유증을 부르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시화지구 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은 안산시뿐만 아니라 인근 시흥시와 화성시를 포함한 대규모 간석지 개발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애초 식량 생산을 위한 농지조성과 담수호 조성을 통한 수자원 확보가 목적이었다. 그러나 그 숨은 의도는 중동 건설 붐의 쇠퇴와 함께 경영 위기에 빠진 국내 건설사들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것이었다. 주지하듯이 이 사업은 엄청난 환경재앙을 몰고 와 결국 해수유통이라는 고육지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몰렸다. 시화호는 안산의 환경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었다.

공단 조성이 확대되면서 안산시의 도시계획도 새롭게 재정비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애초 계획했던 20만 또는 30만 명 규모의 도시계획으로는 늘어나는 인구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1991년부터 ‘고잔들 기본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것이다. 애초 계획은 고잔동, 초지동 일대 215만 평 부지에 8만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단지를 건설한다는 것이었다.



고잔동·성도동 주거 단지

시화지구 개발과 함께 1993년 안산 신도시 1단계 개발이 완료되면서 안산 지역은 새로운 도시 계획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특히 불어나는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계획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1994년 경기도 시흥과 안산 - 화성 - 용진군 일대 서해안 시화 - 안산지구에 주거용지 700만 평에 수도권 인구 52만 5,000명을 수용하는 대규모 신도시 조성 계획이 마련되었다. 이 신도시에는 시화공단 427만 평을 새로 조성, 기존 반월공단 308만 평과 함께 서울지역 중소규모 공장 3,300개를 유치, 인천 남동공단과 연결되는 서해안 공업벨트의 핵심축이자 중국진출 전초기지로 활용한다는 목표가 설정되었다.

도시 규모 확대는 필연적으로 교통망 확대를 요구하게 되었다. 수도권 교통문제는 비단 안산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이에 수도권 광영 교통망 체계 확대가 시도되었는데, 서울외곽순환도로, 서해안 고소도로 등은 안산과 관련되는 것이었다. 교통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서해안 고속도로 안산 관련 구간 공사가 앞당겨지기도 했다.

특히 1993년 4월 개통된 안산~사당간 과천선 전철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전철의 개통으로 안산은 서울 접근권이 대폭 강화되었고 심리적 거리감도 크게 축소되었다. 이어서 2000년 7월 28일에는 수도권 전철 4호선이 시흥시 오이도역까지 연장됨으로써 안산의 전철 교통망은 대체적 완성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안산의 성장 과정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특히 1998년 이른바 IMF외환위기 사태는 안산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안산의 급속한 성장은 주거, 교통, 환경, 교육 등 다방면에 걸쳐 많은 도시문제를 발생시켰다. 교육문제만 보더라도 1990년대 후반 안산의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는 37.4명으로 38.8명을 기록한 인천 계양구에 이어 2위를 차지



산책객이 많은 시화호갈대습지공원

하고 있었다. 급속한 성장을 따라가지 못한 교육투자가 주요 원인이라 할 것이다.

안산의 성장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환경문제이다. 1993년 해양연구소 극지연구센터가 7월과 8월에 걸쳐 안산 반월공단 앞바다 개펄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9년 전 조사에서 확인된 조개류가 완전히 멸종한 것으로 나타났고 갯지렁이 등의 체

내 중금속 농도가 비오염지역에 비해 수십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984년 서울대학교 해양학과 조사에서 확인된 m^2 당 최고 2만 개까지 확인되었던 조개류가 모두 사라진 것이었다.

안산은 캔버라를 모델로 삼아 친환경 공업도시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안산이 친환경 공업도시가 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중소규모 공해 유발 공장의 이전이라는 목적 하에서 환경문제는 필연적으로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중소기업이기에 제대로 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기도 힘들었고, 또 업종 자체가 공해유발 업종이었기에 안산의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은 명약관화했다. 여기에 시화호 문제가 덧붙여져 안산의 환경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졌다.

안산시의 발전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문제는 외국인 거주민의 존재와 증가추세이다. 외국인 거주자의 절대 다수는 이주 노동자들인데, 이는 안산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적인 상황이기도 하지만, 특히 안산의 이주 노동자 규모는 매우 높은 편이다. 2010년 7월 기준 안산 거주 외국인인 3만 5,260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중 여자는 1만 4,412명이고 남자는 2만 848명이었다. 성비의 확연한 불균형에서 확인되듯이 외국인들은 대부분 단신 입국한 남성 노동자들이었다.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거주민의 증가는 한국사회가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기에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의 발생을 내포하는 것이었다. 인종적, 문화적, 언어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통일성을 간직해 온 한국사회에서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거주민의 존재는 전혀 새로운 현상이었던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을 부정적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었다.

안산시는 그동안 급속한 성장과 발전을 이룩해 왔다. 불과 10여 년 만에 한적한 농어촌 지역에서 수도권 굴지의 공업도시로 변모한 이후 현재 인구 80만을 바라보는 대도시로 성장 중이다. 이에 2008년 안산시는 '안산시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작성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최종심과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새로운 안산의 도시발전상을 제시했다.

이 계획은 향후 안산시가 도시의 균형발전과 21세기 도시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첨단산업 육성 및 클러스터 구축, 미래지향적 복지사회 구현, 대부도의 종합적인 보존·개발 및 관리, 환경이 보전되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기반 구축 등의 계획을 담고 있다. 목표년도의 계획인구는 93만 명이며 도시의 미래상을 '산업·문화·해양이 어우러진 인간 중심의 도시'로 하고 미래전략을 '첨단산업 기반도시', '문화복지 중심도시', '녹색청정 해양도시'로 설정했다.

2010년 들어 안산시는 '반월·시화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앙정부와의 관련이 더욱 밀접해졌다. 2012년까지 1조 원 규모의 펀드 자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통해 안산시는 노후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반월·시화산업단지의 명칭을 '안산 스마트허브'로 개칭하여 첨단산업을 강조하는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도시 성장에 필수적인 교통시설 확보에도 중앙정부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서울 여의도에 서 출발해 안산과 시흥을 연결하는 '신 안산선 복선 전철노선'이 완공되면 안산 중앙역에서 여의도역까지의 시간적 거리가 30분 정도로 단축된다.

현재 안산시의 특징을 잘 보여 주는 요소 중의 하나는 대규모 이주 노동자들의 존재이다. 이주 노동자 문제는 안산시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주 노동자 자신뿐만 아니라 안산시민들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다문화, 다인종 사회로의 전망은 더 이상 전망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안산은 이러한 변화를 선구적으로 겪고 있다고 판단된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동체적 삶에 대한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2008년 3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전담부서인 외국인주민센터가 개관되고, 2009년 이주노동자들이 많은 원곡동 일대를 '다문화마을 특구'로 지정하는 등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국경 없는 마을'로 불리는 원곡동 일대에는 세계 60여 개국 6만여 명의 외국인과 150여 개의 외국계 기업들이 밀집해 있다.

80만에 육박하는 대도시인 만큼 여러 갈등이 없을 수 없겠지만, 최근 가장 대표적 갈등 사례는 돔구장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다. 2009년 안산시는 초지동 일원 20만㎡에 3만 2,000석의 돔구장과 공공청사, 50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다. 돔구장 사업비는 총 1조 3,000억 원으로, 2012년 12월 완공 예정이었는데, 반대 입장은 안산 1년 예산보다 많은 건설비를 투입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었다.

안산YMCA와 안산경찰서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안산돔구장건설반대대책위



원회’는 “인구 74만의 안산시가 프로야구단을 유치할 가능성이 희박한 데다 WBC 유치도 낙관적이지 않다”며 “게다가 돐구장을 짓는 시공업체에게 아파트 부지를 제공한다는 것은 특혜를 줄 수 있는 만큼 돐구장 건립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안산이 직면한 문제들은 사실 발전의 부산물과도 같은 것이다. 발전이 없었다면 이러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역으로 문제의 극복은 또 다른 발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안산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해결이야말로 안산 발전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환경, 산업공동화, 이주 노동자 문제 등 안산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적지 않다.